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19년 및 중장기

2018. 11

동향분석실

머 리 말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4.9% 감소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4.5%에서 2018년 3.0%, 2019년 2.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은 2007년 12.7%에서 2017년 7.7%로 하락하였다.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뿐 아니라 은행업, 증권업의 자산증가율과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추세 이외에도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보험연구원은 인구구조, 저성장·저금리 등의 추세적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9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과 2022년까지 중장기 전망, 그리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가 추세적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2019년과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2019년 경제전망 / 12

1. 세계경제 / 12
2. 국내경제 / 13
3. 국내경제 주요 이슈 / 17

II. 2019년 보험산업 전망 / 22

1. 보험산업 보험료 / 22
2. 생명보험 / 24
3. 손해보험 / 34

III. 중장기 보험산업 전망 / 48

1. 정성적 분석 / 48
2. 정량적 분석: 중장기 전망 결과 / 53

IV. 경영 및 정책과제 / 54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54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 55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75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77

■ 표 차례

- 〈표 I-1〉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13
- 〈표 I-2〉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 14
- 〈표 I-3〉 소비자물가 상승률 / 15
- 〈표 I-4〉 주요 해외 투자은행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 / 16
- 〈표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6
- 〈표 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6
- 〈표 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7
- 〈표 II-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 41
- 〈표 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44
- 〈표 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46
- 〈표 III-1〉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일본 사례) / 50
- 〈표 IV-1〉 보험회사의 주요 민원 유형별 비중 추이 / 64

■ 그림 차례

- 〈그림 I-1〉 기준금리 추이 / 16
- 〈그림 I-2〉 국고채금리 추이 / 16
- 〈그림 I-3〉 주요국 가계의 부채비율 / 17
- 〈그림 I-4〉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 17
- 〈그림 I-5〉 GDP 대비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 18
- 〈그림 I-6〉 GDP 대비 기업부채와 설비투자 / 18
- 〈그림 I-7〉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 19
- 〈그림 I-8〉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 19
- 〈그림 I-9〉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 20
- 〈그림 I-10〉 중국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부실채권비율 / 20
- 〈그림 I-11〉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상승률 / 21
- 〈그림 I-12〉 달러가치와 유가상승률 / 21
- 〈그림 II-1〉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 23
- 〈그림 II-2〉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 23
- 〈그림 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25
- 〈그림 II-5〉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 27
- 〈그림 II-6〉 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 27
- 〈그림 II-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8
- 〈그림 II-8〉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28
- 〈그림 II-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0
- 〈그림 II-10〉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0
- 〈그림 II-11〉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1
- 〈그림 II-12〉 일반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1
- 〈그림 II-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2
- 〈그림 II-1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2
- 〈그림 II-15〉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 32
- 〈그림 II-16〉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 33

■ 그림 차례

- 〈그림 II-1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 33
- 〈그림 II-18〉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 34
- 〈그림 II-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35
- 〈그림 II-2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8
- 〈그림 II-21〉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8
- 〈그림 II-22〉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9
- 〈그림 II-23〉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9
- 〈그림 II-24〉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9
- 〈그림 II-25〉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39
- 〈그림 II-26〉 운전자·재물보험 등 원수보험료 전망 / 40
- 〈그림 II-27〉 운전자·재물보험 등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40
- 〈그림 II-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42
- 〈그림 II-29〉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42
- 〈그림 II-3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43
- 〈그림 II-31〉 퇴직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43
- 〈그림 II-32〉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 45
- 〈그림 II-33〉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보험료 / 45
- 〈그림 II-34〉 채널별 판매비중 / 45
- 〈그림 II-35〉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47
- 〈그림 II-36〉 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 47
- 〈그림 III-1〉 주요국의 기대여명 / 49
- 〈그림 III-2〉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 49
- 〈그림 III-3〉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 49
- 〈그림 III-4〉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 50
- 〈그림 III-5〉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민간신용 규모 / 51
- 〈그림 III-6〉 인구 고령화와 장기금리 / 51
- 〈그림 III-7〉 금융업권 자산증가율 추이 / 52
- 〈그림 III-8〉 금융업권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 52

■ 그림 차례

- 〈그림 Ⅲ-9〉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52
- 〈그림 Ⅲ-10〉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52
- 〈그림 Ⅲ-11〉 생명보험 증장기 전망 / 53
- 〈그림 Ⅲ-12〉 손해보험 증장기 전망 / 53
- 〈그림 IV-1〉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 54
- 〈그림 IV-2〉 국내 보험산업 ROE 추이 / 55
- 〈그림 IV-3〉 법인세차감전이익 전망 / 55
- 〈그림 IV-4〉 환경변화에 따른 비용관리 전략 / 56
- 〈그림 IV-5〉 보험회사별 일반대출의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변화 / 58
- 〈그림 IV-6〉 K-ICS 시행 시 보험회사 자산별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 58
- 〈그림 IV-7〉 장수위험 관리 / 60
- 〈그림 IV-8〉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사업구조 / 62
- 〈그림 IV-9〉 ROE 평균과 표준편차 / 62
- 〈그림 IV-10〉 ROA 평균과 표준편차 / 62
- 〈그림 IV-11〉 보장성보험 신해지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이 / 63
- 〈그림 IV-12〉 저축성·변액보험 신해지율 추이 / 63
- 〈그림 IV-13〉 불완전판매 비율 추이 / 64
- 〈그림 IV-14〉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추이 / 67
- 〈그림 IV-15〉 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2017년) / 67
- 〈그림 IV-16〉 생명보험 종목별 민원 비중 / 70
- 〈그림 IV-17〉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와 민원 증가율 / 70
- 〈그림 IV-18〉 상해·질병 초회보험료 추이 / 71
- 〈그림 IV-19〉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 추이 / 71
- 〈그림 IV-20〉 복지지출 확대 계획과 기초연금에 대한 영향 / 72
- 〈그림 IV-21〉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현황 / 72
- 〈그림 IV-22〉 사적연금 관련 이슈 / 74
- 〈그림 IV-23〉 증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76
- 〈그림 IV-24〉 장기요양 서비스 일본 사례 / 78

■ 그림 차례

- 〈그림 IV-25〉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의 역할 / 80
- 〈그림 IV-26〉 신기술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 / 82
- 〈그림 IV-27〉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 86
- 〈그림 IV-28〉 기술, 사회 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 / 86
- 〈그림 IV-29〉 2017년 Fortune Global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 88
- 〈그림 IV-30〉 다이이치 생명의 베트남 진출 사례 / 88
- 〈그림 IV-31〉 스페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 / 89
- 〈그림 IV-32〉 생명보험 연금저축 증가 / 90
- 〈그림 IV-33〉 손해보험 건강보험 확대 / 90
- 〈그림 IV-34〉 유럽 보험산업 주가와 자기자본이익률 / 91
- 〈그림 IV-35〉 이탈리아와 스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와 합산비용 / 92
- 〈그림 IV-36〉 2015년 주요국 기준 듀레이션갭과 생명보험 자기자본이익률 / 94
- 〈그림 IV-37〉 네덜란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95
- 〈그림 IV-38〉 요약 / 96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Agenda in 2019 and Midterm Perspective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plunged. Life insurance premium growth rate is projected -4.5% in 2018 and expected to inch up to -3.8% in 2019 while non life insurance premium is expected to grow 3.0% in 2018 and 2.7% in 2019. Return on equity of insurance industry is going down from 12.7% in 2007 to 7.7% in 2017.

Demographic change seems to be the main reason for declining growth rate and profitability. In addition to that, low growth of GDP and low interest rates, adoption of the IFRS 17 and resulting implementation of the K-ICS, sales fee restructuring, and change in tax benefits for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are the other factors influencing insurance industry. Based on these factors, forecasting results show that life insurance premium continues to decrease at the rate of 1.7% and, non life insurance premium is expected to merely increase annually 0.4%.

In order to overcome decreasing trend of growth rate and shrinking profitability, Korea insur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find ways to maintain profitability and to enhance growth potential based on consumer confidence. We suggest cost management including asset liability management and to manage insurance policies in force, and to expand growth potential in response to technology, qualitative demographic,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s change. Details on these agenda are described in this report.

요약

I. 201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 IMF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함

2. 2019년 경제전망

-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둔화, 순수출 감소 등으로 2.7% 증가할 전망이다
 -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설비·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 등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세 지속,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등은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 경제 둔화, 유가 상승세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 수입물가 상승, 임금 상승세 확대 등으로 1.7% 상승할 전망이다
 - 2018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어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8년 2.0% 내외, 2019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세가 예상되나 경기부진,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인하여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II. 2019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시장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2018년 1.18%, 2019년 0.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장기손해 상해·질병을 제외하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생명보험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수요둔화, 시장포화 등으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 지속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한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로 12.3%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인 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등으로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시장포화, 경기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

- 해지가 확대되고 판매수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10.6% 감소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IFRS 17 도입 이후 자본부담 확대로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져 2019년에도 17.4% 감소할 전망이다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IRP 가입 대상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전년 대비 6.1% 감소에 이어 2019년에도 전년 대비 5.0%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3. 손해보험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 상해·질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1.5%p 하락한 3.0%일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보험의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년 대비 2.2% 증가가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 둔화와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 지속으로 전년 대비 8.2%p 하락한 5.9%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형사 중심의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의 견조한 증가세와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8.3% 증가가 예상됨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등으로 연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되어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판매수수료 감소 및 낮은 보증이율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연금의 감소세 지속으로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요율인상 요인과 온라인보험 활성화,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할인특약 확대 등의 인하 요인이 혼재하면서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을 중심으로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요약 표 1〉 2019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보장성 ¹⁾	402,894	6.6	417,592	3.6	426,457	2.1	433,286	1.6
	저축성 ²⁾	620,348	-4.5	565,430	-8.9	495,991	-12.3	443,175	-10.6
	퇴직연금	167,252	22.1	149,064	-10.9	158,932	6.6	163,863	3.1
	기타 ³⁾	7,619	-1.5	7,649	0.4	7,589	-0.8	7,530	-0.8
	합계 ⁶⁾	1,198,113	2.2	1,139,735	-4.9	1,088,969	-4.5	1,047,854	-3.8
손해보험	장기손보	477,727	2.6	490,880	2.8	501,735	2.2	511,561	1.9
	상해·질병	271,537	11.7	296,606	9.2	321,818	8.5	341,127	6.0
	저축성	82,488	-21.2	63,263	-23.3	45,500	-28.0	32,522	-28.6
	기타 ⁴⁾	123,703	4.8	131,011	5.9	134,417	2.6	137,912	2.6
	연금부문	118,160	13.8	134,764	14.1	142,764	5.9	149,067	4.4
	개인연금	38,768	-3.6	37,007	-4.5	35,231	-4.8	33,469	-5.0
	퇴직연금	79,392	24.7	97,757	23.1	107,533	10.0	115,598	7.5
	자동차	164,053	9.4	168,573	2.8	168,915	0.2	169,760	0.5
	일반손보	85,032	2.6	89,116	4.8	96,474	8.3	104,549	8.4
	화재	3,011	-1.0	2,965	-1.5	2,929	-1.2	2,912	-0.6
	해상	6,080	-14.3	6,437	5.9	6,482	0.7	6,547	1.0
	보증	15,909	0.6	17,435	9.6	19,179	10.0	21,096	10.0
	특종 ⁵⁾	60,032	5.4	62,279	3.7	67,884	9.0	73,994	9.0
	합계	844,972	5.3	883,334	4.5	909,937	3.0	934,936	2.7
전체		2,043,084	3.5	2,023,069	-1.0	1,998,907	-1.2	1,982,790	-0.8

주: 1)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

2)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

6)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Ⅲ. 중장기 보험산업 전망

1. 정성적 분석

- OECD 주요국의 자료 분석 결과 기대여명 상승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경제성장률 및 금리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공적보장 축소로 이어짐

○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유사하거나 큰, 그리고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캐

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함

- 경제성장률 하락과 자금수요 부진으로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으로 2.5~3.0%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은행업 및 타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2. 정량적 분석: 중장기 전망 결과

- 인구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정하여 수입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가 확대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성장세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생·손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2022년까지 보험산업 보험료는 감소하고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2019년에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함

- 비용관리와 보유계약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이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임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가. 수익성 관리

-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수익성 관리를 위해 비용관리와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장수위험 관리가 필요함
 -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인건비 효율성 제고, 상품 단순화와 신뢰성 제고, IT 비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비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을 재수립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
 -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위험이 추가됨에 따라 시나리오 방식 도입,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장수위험의 측정, 재보험, 보험연계증권(ILS) 등을 통한 장수위험 관리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부채구조의 변화와 보유계약 관리

- 저축성보험 감소와 해약증가는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유계약 관리를 통한 해약 억제가 필요함
 -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는 부채구조를 변화시켜 보험회사의 이익구조, 수익성, 성장성, 리스크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약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억제, 고아계약 관리 등을 통한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함
 - 불완전판매 비율은 하락하지만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검토,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의 채널 전환, 판매자책임 관련

법제화,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함

- 고아계약 관리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아계약 관련 전담조직 운영,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구분 및 금융감독 당국의 고아계약 관리 실태 파악과 공시 추진이 필요함

- 변액보험 민원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다. 공적보장 확대 대응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영향 분석,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성화 및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 등 공적보장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바와 같이 공적보장이 확대되고 있고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아 공적보장 확대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음
- 공적보장 확대는 사적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도출한 중장기 전망 결과에 근거하여 추세적인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추세 극복 요인들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정, 제안함

-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구고령화, 자본시장의 발달 등 추세적 변화에 대응한 사례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들의 사례인데, 이들은 자산관리사업 등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추세를 극복함

-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소비자 신뢰, 공적보장제도에 대한 대응

등이 보험산업의 추세 극복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는 IT 기술의 보험사업 접목을 확대시켜 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음
- 공적보장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공적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는 공적보장 범위에서 궁극적으로 사적보장에까지 영향을 미침
-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낮아진 소비자 신뢰는 보험산업의 생존과 직결됨

■ 추세 극복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로 제시함

- 성장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로 보험의 역할 확대, 해외사업 확대, 공적영역 보완 등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로 중장기적 비용관리, 보험금 누수 억제, 그리고 자산부채관리 강화 등을 제시함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가. 성장성 제고

■ 보험산업의 성장성 제고를 위해 보험의 역할 확대 및 해외사업 확대, 공적영역의 보완이 필요함

- 양적, 질적 인구구조의 변화, IT 기술 접목 확산, 위험의 변화 등은 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험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의 리스트럭처링(Regulatory Restructuring)이 선행되어야 함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일본의 개호 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공적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보험회사는 리스크 재무 기능뿐만 아니라 인수여테크를 활용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보험산업에는 인공지능(AI)의 활용,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활용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보험회사는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신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보험 의무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사이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단독형 상품의 판매,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2026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 정비 및 보험상품 개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해외사업을 통한 보험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적보장 관련 비용을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초래된 공적보장의 축소를 민영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성장성을 제고함

나. 수익성 제고

- 보험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이하 'ALM')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보험료 결정 등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환경 개선이 필요함
 -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억제는 사회적 비용관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금리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LM 관리를 통한 자본비용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 주요국과 같은 규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다. 소비자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가 수입보험료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네덜란드 사례는 소비자 신뢰가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원동력임을 시사함
 - 2015년 네덜란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08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으로 인한 보험산업 신뢰저하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라. 요약

-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등 복지제도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환경을 추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시장포화, 저성장·저금리 등은 보험 등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추세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음
- 비용관리와 사업 효율화, 자산부채관리를 통한 자본비용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소비자 신뢰 제고 등 추세 극복요인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 201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함¹⁾
 - 미국 경제는 고용여건 개선과 소매판매 증가,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수출 수요²⁾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경제는 기업 및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로 전망치가 하락하였고, 유로 경제는 성장둔화 추세가 전망됨

- 미국은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준금리를 2019년 말까지 4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금리인상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실업률 개선과 소매판매 증가, EU지역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 일본의 수출 및 직접투자 증가와 고용개선으로 소비의 완만한 증가는 기회요인임
 - 중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 및 무역분쟁 확산과 신흥국 금융 불안은 위험요인임

1) IMF(2018.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수출 품목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수요를 말함

〈표 I-1〉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세계경제	3.2	3.8	3.9	3.9
EU	1.8	2.4	2.2	1.9
미국	1.5	2.3	2.9	2.7
중국	6.7	6.9	6.6	6.4
일본	1.0	1.7	1.0	0.9

자료: IMF WEO update(2018. 7)

2. 국내경제

가. 경제성장률

-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부진에도 민간소비, 수출 증가 등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수출은 2017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수입은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둔화, 순수출 감소 등으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규제 강화로 2019년 건설투자는 2018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2018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을 확대시키고 이자비용을 상승시켜 투자위축 및 내수위축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표 I-2〉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²⁾	연간(E) ¹⁾	연간(F) ¹⁾
실질 GDP	2.8	2.9 (1.0)	2.8 (0.6)	3.8 (1.4)	2.8 (-0.2)	3.1	2.8 (1.0)	2.8 (0.6)	2.0 (0.6)	2.8	2.7
민간소비	2.5	2.1	2.4	2.6	3.4	2.6	3.5	2.8	2.6	2.9	2.6
설비투자	-2.3	16.1	17.9	16.3	8.6	14.6	7.3	-3.0	-7.7	-0.3	1.3
건설투자	10.7	11.3	8.5	8.0	3.8	7.6	1.8	-1.5	-8.6	-0.5	-1.8
수출	2.1	3.7	0.3	4.4	-0.6	1.9	1.6	4.8	3.1	3.1	3.0
수입	4.5	10.1	6.6	7.4	4.1	7.0	4.2	2.0	-1.2	2.3	1.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속보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경제성장률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건설 및 설비투자 위축, 소비증가율 둔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9년에도 내수활성화 정책, 복지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 등에 의해 대외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나. 물가상승률

-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이며, 연간으로는 1.5%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9년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확대된 1.7%로 전망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개선으로 인한 임금상승세 확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설비투자,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부진은 물가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음

〈표 I-3〉 소비자물가 상승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²⁾	연간(F) ²⁾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1	1.9	2.3	1.5	1.9	1.3	1.5	1.5	1.7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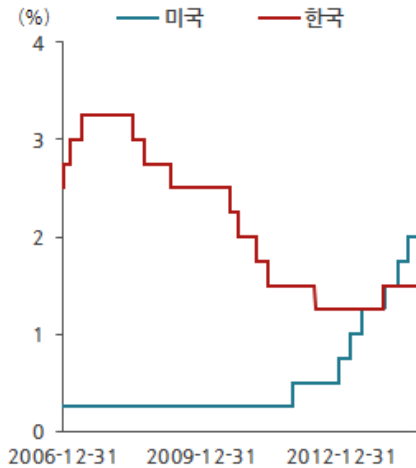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다. 금리

- 경기부진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로 2018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0% 내외를 유지함
 - 2018년 국고채 금리(3년물)는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상승세가 둔화되어 2.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2%로 전망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19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018년에 비해 상승할 것이나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금리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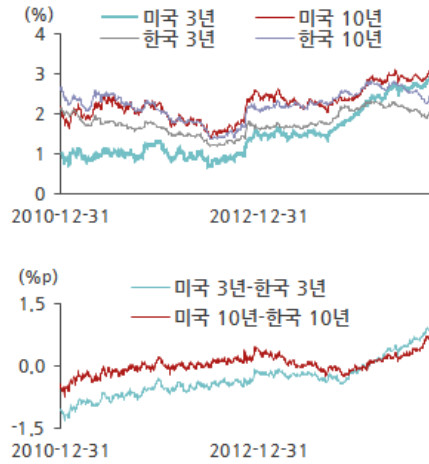
- 반면 경제성장세 둔화와 고용지표 부진, 가계부채 등은 기준금리 인상 억제 요인임

〈그림 I-1〉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2〉 국고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표 I-4〉 주요 해외 투자은행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

(단위: %)

투자은행	2018		2019	
	3/4	4/4	1/4	2/4
BoA-ML	1.75	1.75	1.75	1.75
Barclays	1.50	1.75	1.75	2.00
Goldman Sachs	1.50	1.75	1.75	2.00
Citi	1.50	1.75	1.75	2.00
JPMorgan	1.75	1.75	2.00	2.00
UBS	1.50	1.75	1.75	2.00

주: 2018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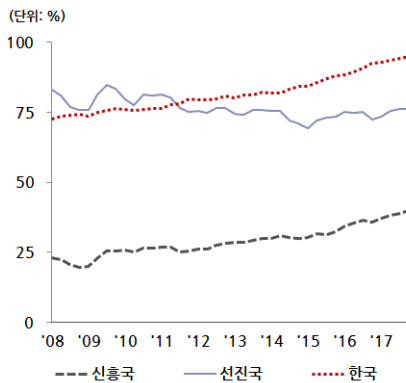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국내경제 주요 이슈

가. 부채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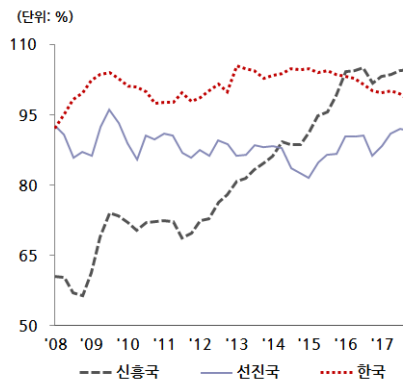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선진국 평균 75%를 상회하였으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I-3〉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부채조정을 하고 있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함
 - 2015년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낮음
 -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그림 I-4〉 참조)

〈그림 I-3〉 주요국 가계의 부채비율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I-4〉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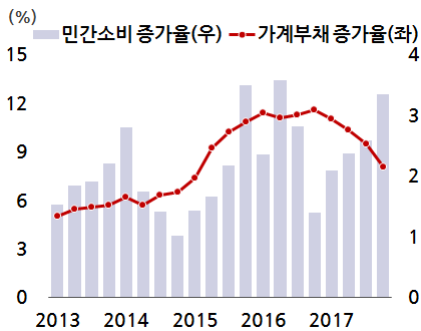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하였고, 2017년 기업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적인

로 전년에 비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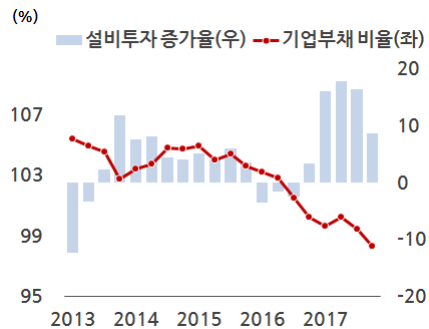
- 2017년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함
(〈그림 I-5〉 참조)
- 2017년 기업부채비율이 하락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승함(〈그림 I-6〉 참조)

〈그림 I-5〉 GDP 대비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그림 I-6〉 GDP 대비 기업부채와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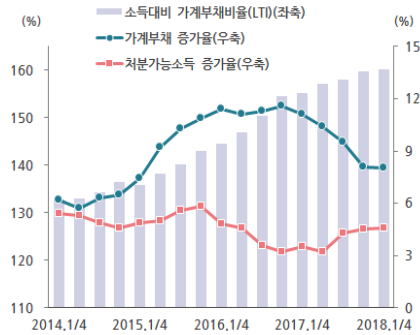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나.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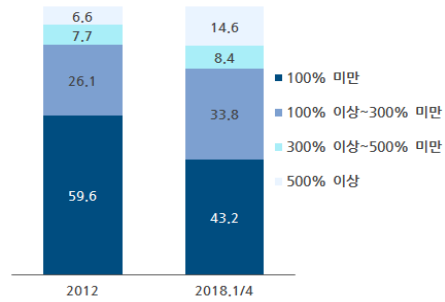
-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까지 높아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그림 I-7〉 참조)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30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14.3%에서 2018년 1/4분기 23.0%로 상승함(〈그림 I-8〉 참조)

〈그림 I-7〉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자료: 한국은행

〈그림 I-8〉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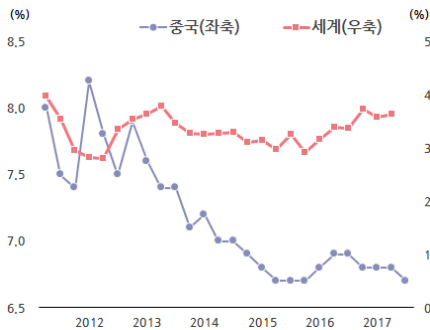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9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는 심화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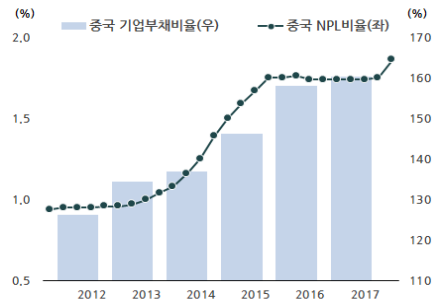
다. 중국 경제 둔화

-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은행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비율 상승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이 중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IMF는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가 2020년 이후 세계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7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그림 I-9〉 참조)
 -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 160%로 상승하였고 은행의 NPL 비율은 2%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그림 I-10〉 참조)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수입수요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I-9〉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 Bloomberg;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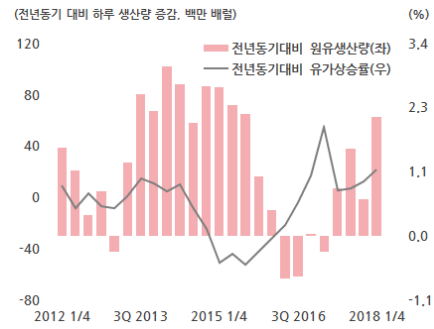
〈그림 I-10〉 중국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부실채권비율

자료: Bloomberg

라.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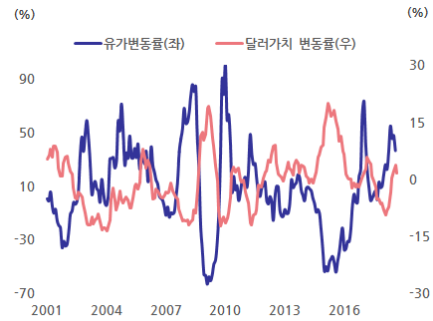
- 세계경기 상승세, 미국의 이란 제재, 달러가치 상승세로 유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세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8월 평균 원유가격은 배럴당 73달러로 2016년 1월 20일 26.55달러에 비해 3배 상승함
 - 원유생산량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I-11〉 참조)
 - 2017년 이후 달러가치 상승으로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임(〈그림 I-12〉 참조)
-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18년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2019년 유가는 배럴당 74달러로 전망됨
- 유가상승에 따라 수입증가 및 수입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순수출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11〉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상승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I-12〉 달러가치와 유가상승률



자료: St. Louise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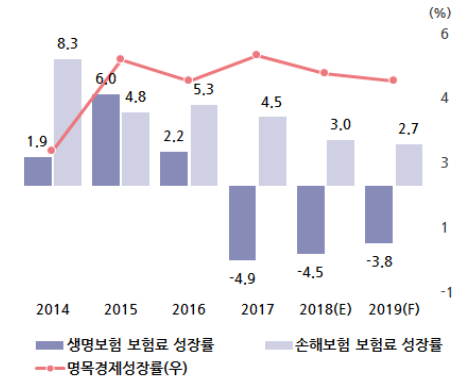
II. 2019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가. 수입 및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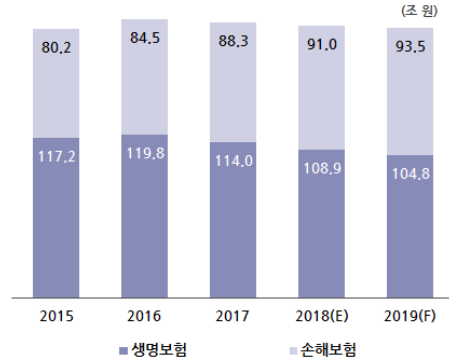
- 시장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8년 1.18%, 2019년 0.80%(각각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수준보다 높지만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19년 명목경제성장률은 4.7%로 전망되는데, 2018년 4.9%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나 2012년 2.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5%, 손해보험 3.0%로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4.8조 원(-3.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93.5조 원(2.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까지 수입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명목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측면도 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시장포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2016년 5.3%를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그림 II-2〉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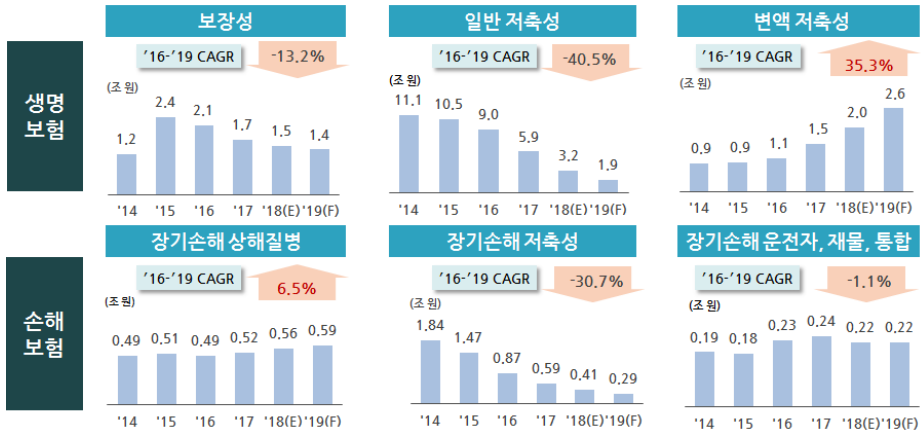
■ 보험수요의 둔화는 초회보험료 감소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에서 발생하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

■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 장기손해 상해·질병을 제외한 초회보험료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 초회보험료는 2018년 2조 원, 2019년 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35.3%),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보험료는 각각 13.2%,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과 장기손해저축성보험은 각각 40.5%, 30.7% 감소가 전망됨

〈그림 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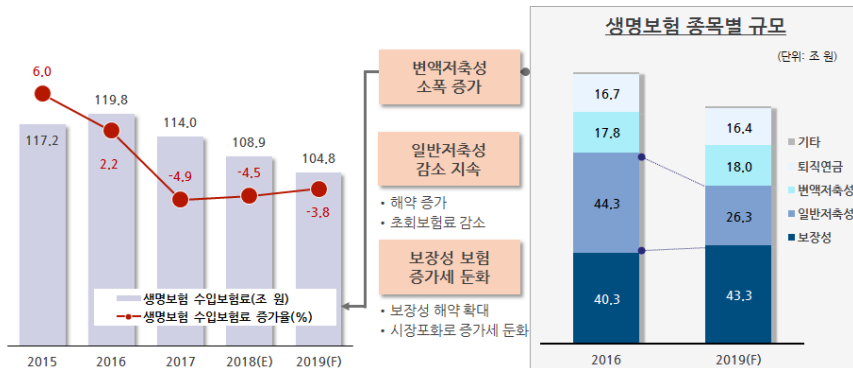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개요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수요둔화, 시장포화 등으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 지속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한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로 12.3%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등으로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 지속으로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시장포화, 경기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 해지가 확대되고 판매수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10.6% 감소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IFRS 17 도입 이후 자본부담 확대로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져 2019년에도 17.4% 감소할 전망이다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IRP 가입 대상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전년 대비 6.1% 감소에 이어 2019년에도 전년 대비 5.0%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 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주: '18(E)와 '19(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E) ¹⁾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98,112	2.2	1,139,735	-4.9	1,088,970	-4.5	1,047,854	-3.8
(퇴직연금 제외)	1,030,861	-0.4	990,671	-3.9	930,037	-6.1	883,991	-5.0
보장성보험 ²⁾	402,894	6.6	417,592	3.6	426,457	2.1	433,286	1.6
저축성보험 ³⁾	620,348	-4.5	565,430	-8.9	495,991	-12.3	443,175	-10.6
일반저축성	442,573	-3.9	387,903	-12.4	318,832	-17.8	263,258	-17.4
변액저축성	177,774	-5.9	177,526	-0.1	77,159	-0.2	179,916	1.6
퇴직연금	167,252	22.1	149,064	-10.9	158,932	6.6	163,863	3.1
기타 ⁴⁾	7,619	-1.5	7,649	0.4	7,589	-0.8	7,530	-0.8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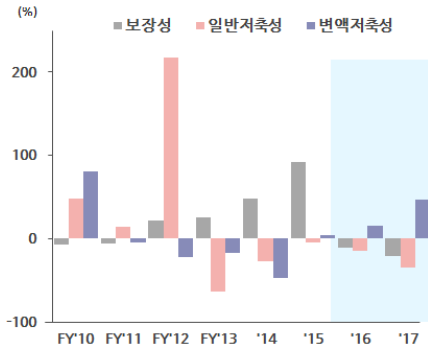
■ 종목별 초회보험료는 2016년 이후 보장성보험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일반저축성 보험은 감소세가 확대됨(〈그림 II-5〉 참조)

- 반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6월 보험계약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보험수요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계속보험료 증가율을 종목별로 보면, 일반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변액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보장성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됨(〈그림 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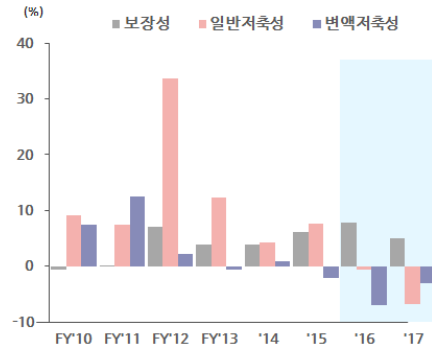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까지 해지율이 상승하고 있음
- 이는 계속보험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II-5〉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6〉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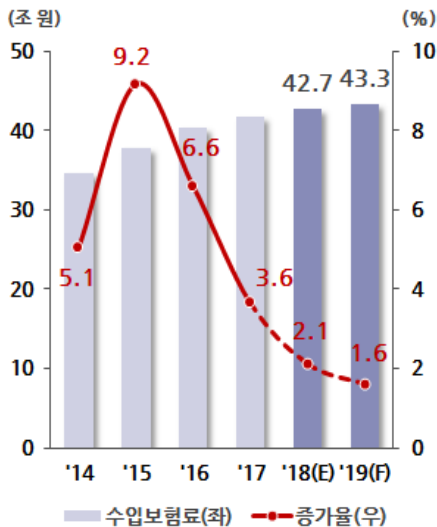
-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종신보험의 시장 포화(성숙)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해지 증가로 전년도 3.6%에 비해 1.5%p 낮은 2.1%로 전망됨
 - 새 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으로 신규 판매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⁴⁾ 등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사망보험 수요 감소로 신규 수요 창출은 제한적일 것이며, 경기 부진으로 인한 해지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

3)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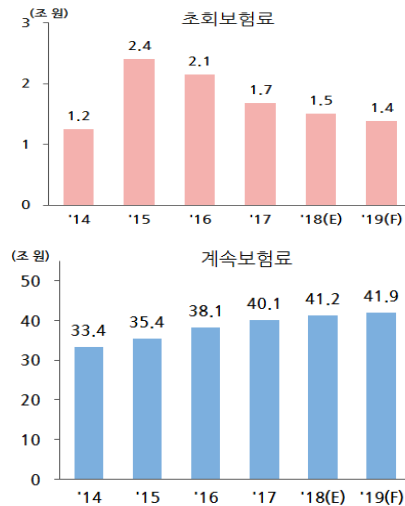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6. 7),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 보장성보험 수수료 체계가 조정될 경우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⁵⁾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보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연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또한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임
-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 심화,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장성보험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치아보험, 미니보험 등 새로운 건강보험상품들의 보험료는 중·저가임

〈그림 II-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8〉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2018년 상반기 접수된 생명보험 민원은 9,7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1,874건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민원의 약 20%를 차지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7), "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

다. 저축성보험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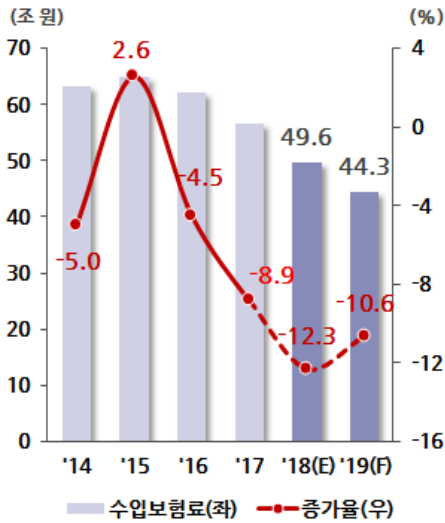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17.8%)과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0.2%)로 1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비한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 공시이율 하락⁷⁾ 등으로 17.8% 감소할 전망이다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부진(-17.4%)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1.6%)으로 2018년 대비 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보험 유지 여력 감소, 새 국제회계제도 도입,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201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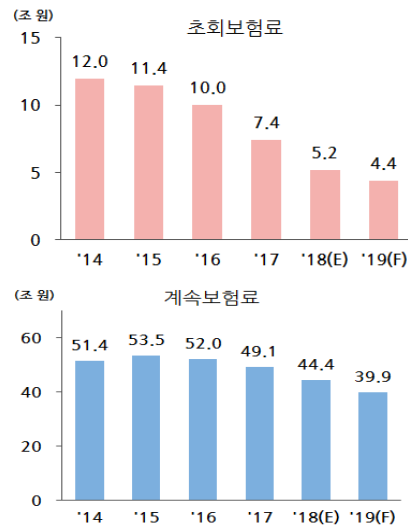
6)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7)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10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함. 한화생명은 7bp,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4bp씩 하향 조정함. 3개사의 10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모두 2.74%임

〈그림 II-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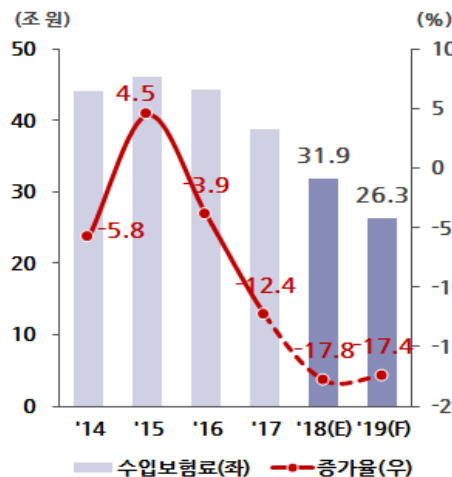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0〉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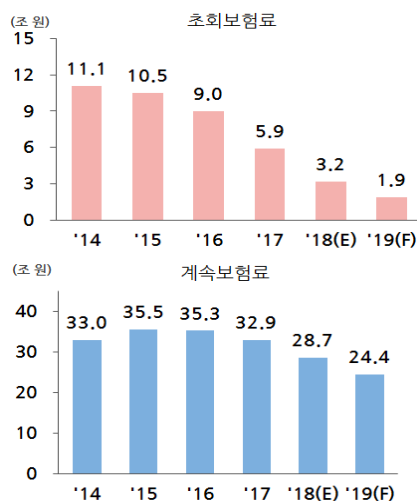
- 2019년 일반저축성보험은 공적연금 우려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한 소극적 판매 전략, 보증이율 하락으로 17.4% 감소할 전망이다
 -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로 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책임준비금 부담과 자본변동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극적 판매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축성보험 판매 수수료 감소는 설계사들의 일반저축성 판매 유인을 약화시킬 것임
 - 경기부진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은 저축성보험 수요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로 계속보험료는 2016년 35.3조 원에서 2018년 28.7조 원, 2019년 24.4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우려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증가, 공시이율 상승 가능성 등의 수입보험료 증가요인이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1〉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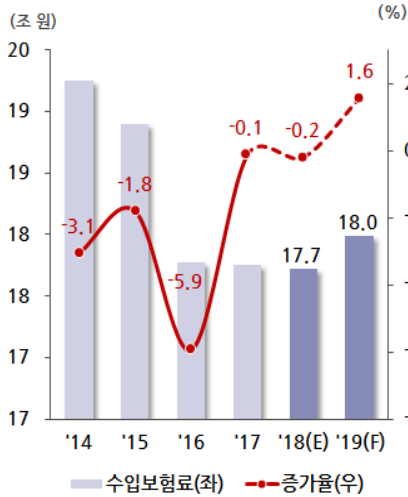
〈그림 II-12〉 일반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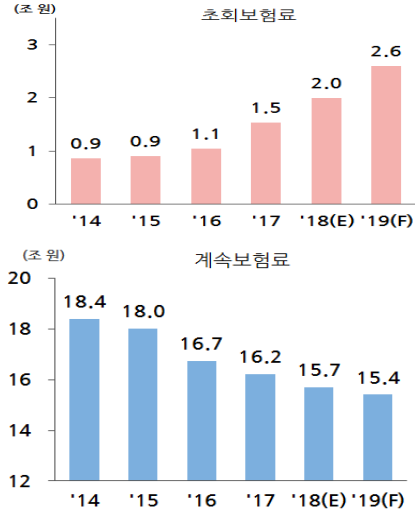
-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의 해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초회보험료 증가로 계속보험료는 2016년 16.7조 원에서 2018년 15.7조 원, 2019년 15.4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음

〈그림 II-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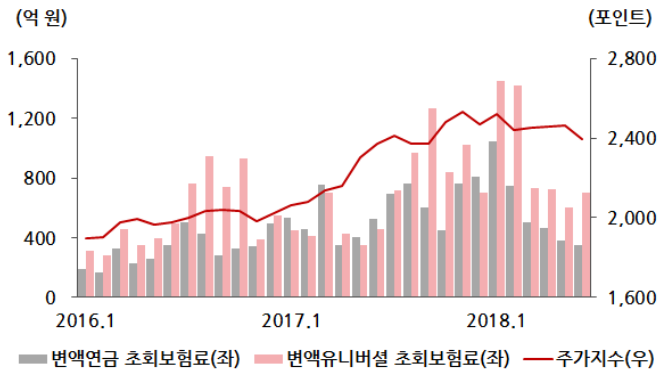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5〉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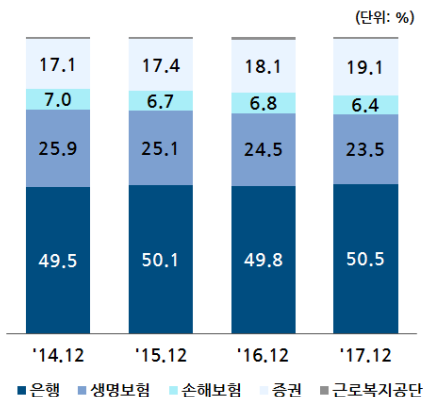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라.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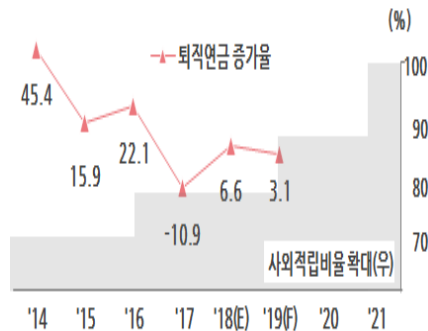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6.6% 증가가 전망됨
 - IRP 대상이 2017년 7월부터 1년 미만 재직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소득근로자로 확대되면서 추가 수요가 예상됨
- 2019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상승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요구자본 규제 강화 및 업권 간 경쟁심화 등으로 3.1%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DB형 사외적립비율이 2019년부터 80%에서 90%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금상승률은 2018년 1월부터 5%대를 지속하고 있음
 - DB형 사외적립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던 2016년의 경우 퇴직연금 증가율은 22.1%를 기록함
 - 반면 K-ICS 대비 적립금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판매 전략, 타 금융권 실적배당형 DB형 경쟁 심화로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16〉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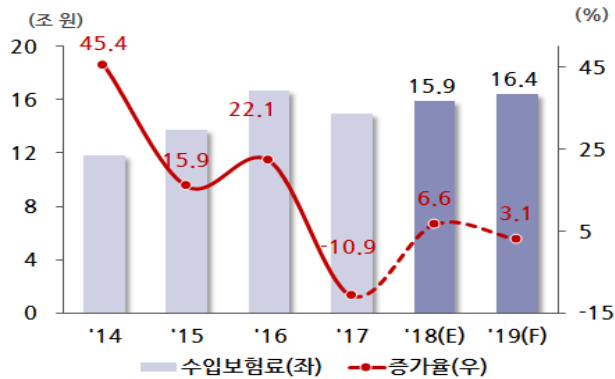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1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18〉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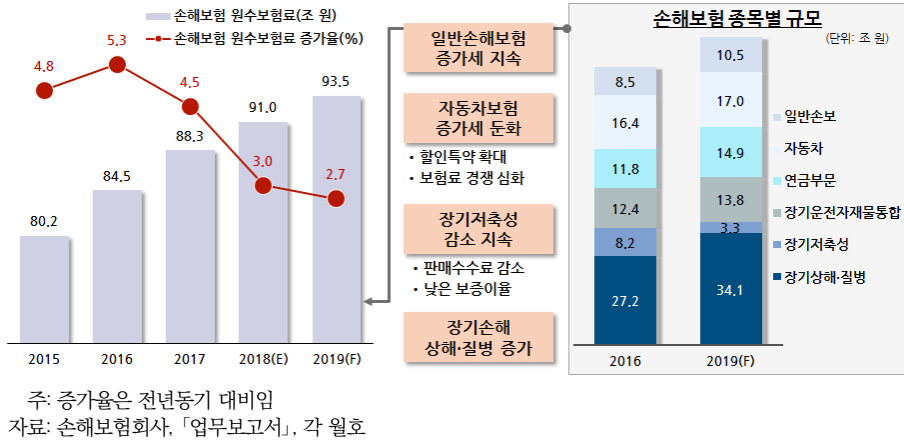
가. 개요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 상해·질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1.5%p 하락한 3.0%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확대,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 지속으로 전년 대비 8.2%p 하락한 5.9%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형사 중심의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증가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8)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7. 4. 19), “자동차를 적게 타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갑니다”에 따르면 '16. 12월 말 개인용 자동차 553만 대 가입, 가입률은 36.3%로 4년만에 3.2배 증가, 국내 주요 손보사의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률은 평균 47.7%임('17. 4월 기준)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의 증가세 지속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8.3% 증가가 예상됨

〈그림 II-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등으로 연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되어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판매수수료 감소 및 낮은 보증이율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4.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⁹⁾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¹⁰⁾ 등 요율인상 요인과 온라인보험 활성화,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할인

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적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28,981원으로 2010년 21,553~24,252원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2018년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체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강등 해소-적정 시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10) 한겨레(2018. 8. 5), “폭염 극성” 7월 교통사고, 지난해보다 8% 이상 늘었다”

특약 확대 등의 인하 요인이 혼재하면서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을 중심으로 8.4%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4.5	5.3	88.3	4.5	91.0	3.0	93.5	2.7
(퇴직연금 제외 시)	76.6	3.6	78.6	2.6	80.2	2.1	81.9	2.1
장기손해보험	47.8	2.6	49.1	2.8	50.2	2.2	51.2	1.9
연금부문	11.8	13.7	13.5	14.1	14.3	5.9	15.0	4.4
자동차보험	16.4	9.4	16.9	2.8	16.9	0.2	17.0	0.5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7	8.3	10.5	8.4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18년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 증가 및 보험료 인상¹¹⁾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등 신상품 수요 확대 등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와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¹²⁾ 통합형보험의 감소세¹³⁾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6),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별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2.8~32.8% 인상됨

12) 운전자보험 및 재물보험 해약률은 2016년 각각 11.7%, 12.9%, 2017년 각각 11.9%, 13.0% 수준임

13)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7 1/4: 6.3%, 2/4: 2.8%, 3/4: -1.3%, 4/4: -3.0%, '18 1/4: -3.4%, 2/4: -2.6%로 감소세가 지속됨

- 저축성보험은 신규수요 위축과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28.0% 감소가 예상됨

〈표 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7.8	2.6	49.1	2.8	50.2	2.2	51.2	1.9
상해 및 질병	27.1	11.7	29.7	9.2	32.2	8.5	34.1	6.0
저축성보험	8.2	-21.2	6.3	-23.3	4.6	-28.0	3.3	-28.6
운전자·재물 등	12.4	4.8	13.1	5.9	13.4	2.6	13.8	2.6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상해·질병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한 1.9%로 예상됨

- 장기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대비 6.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¹⁴⁾ 간편심사보험의 판매 증가¹⁵⁾¹⁶⁾와 표준화 이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 증가율은 2018년과 유사한 -28.6%로 예상됨
 - 2017년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 등 세제혜택 축소¹⁷⁾의 영향이 지속되고 IFRS 17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금리리스크와 자본 부담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8),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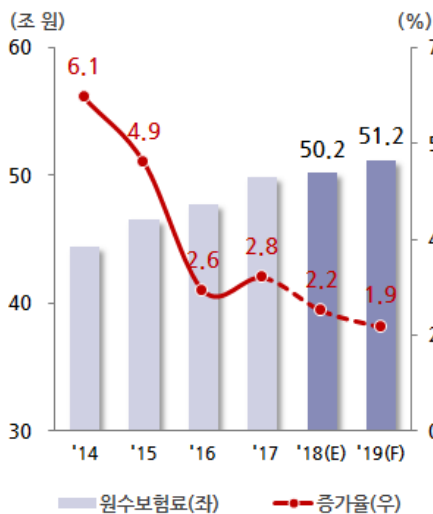
15)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10. 15), “장기손해보험 고연령 보험가입률 증가 두드러져”

16) FETV(2018. 10. 25), “60대 이상 고령자 생명보험 가입 큰폭 증가”

17) 2017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항에 따라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 적립식 150만 원으로 강화된 바 있음

-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¹⁸⁾으로 인한 상품 공시이율의 상승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우려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요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통합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물보험은 실손보상 상품의 증가로 상품 경쟁력이 제고되고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물보험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통합형보험의 높은 보험료와 상품구성의 경직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운전자·재물보험의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음

〈그림 II-2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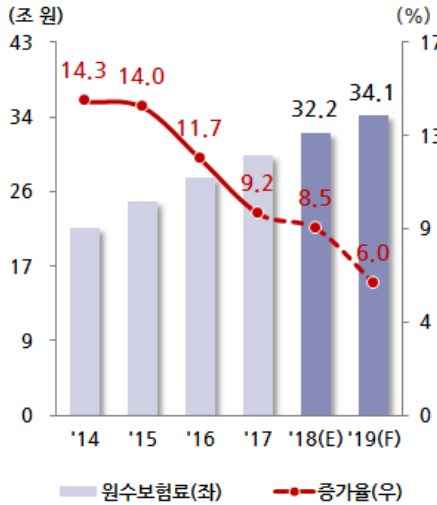
〈그림 II-21〉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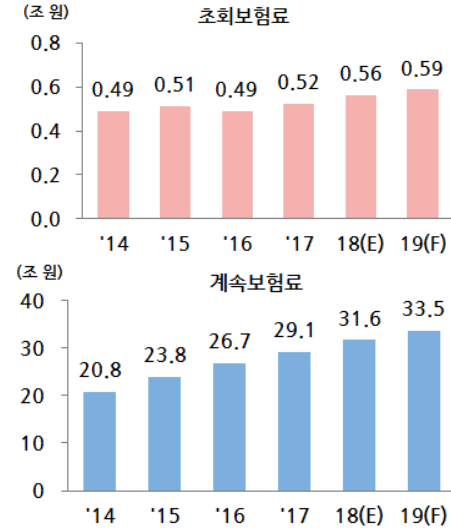
18)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함

〈그림 II-22〉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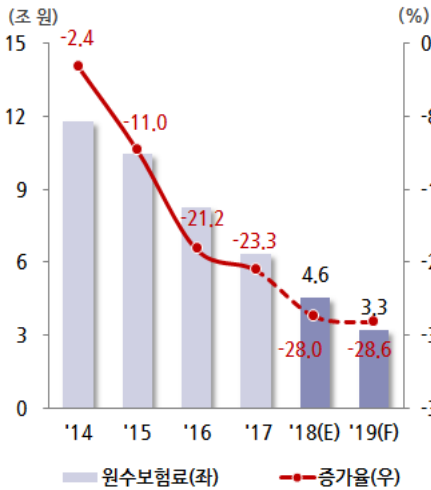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3〉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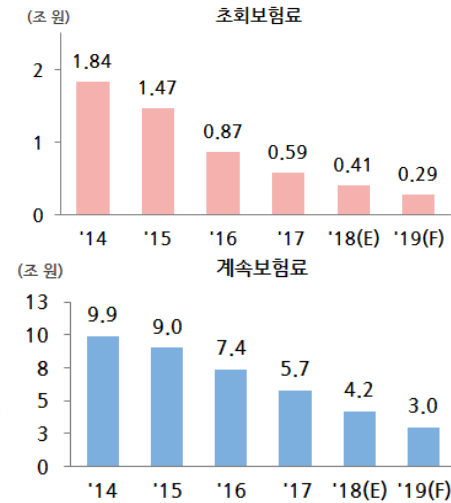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4〉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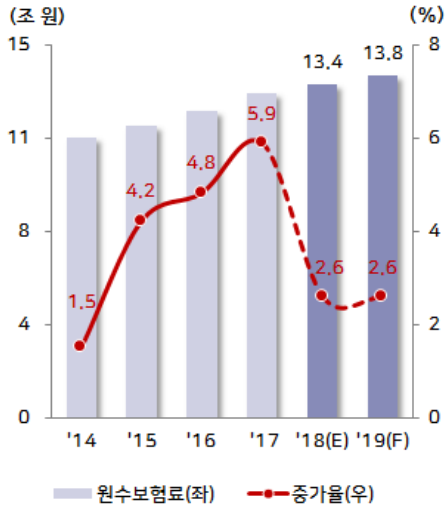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5〉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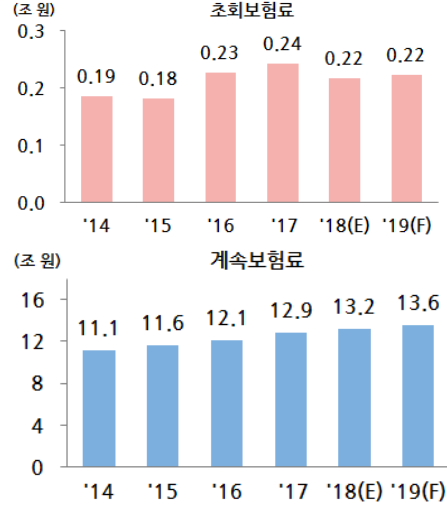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6〉 운전자·재물보험 등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7〉 운전자·재물보험 등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

- 2018년 연금부문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은퇴시장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장기화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로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심화되어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확대 등으로 성장하였으나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성장세 둔화로 10.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은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성장이 전체 퇴직연금시장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계열사 물건의 소진, 퇴직연금상품의 낮은 수익률, 자본적립 부담 등으로 성장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표 II-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부문	11.8	13.7	13.5	14.1	14.3	5.9	15.0	4.4
개인연금	3.9	-3.6	3.7	-4.5	3.5	-4.8	3.4	-5.0
퇴직연금	7.9	24.7	9.8	23.1	10.8	10.0	11.6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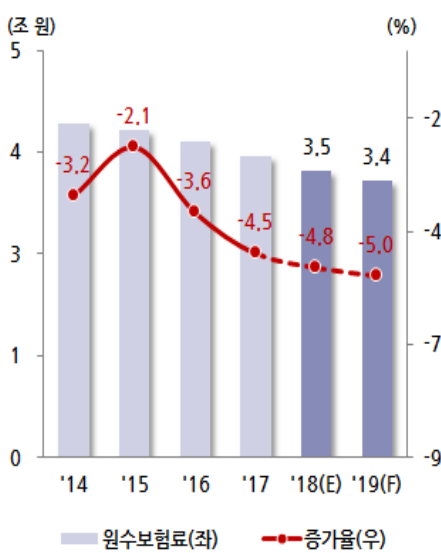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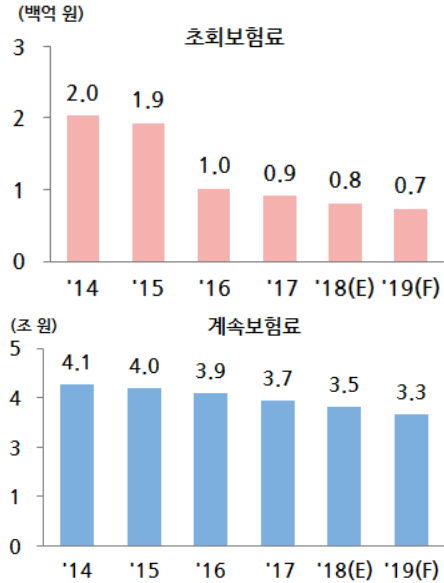
■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이다

- 개인연금 상품은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수익성 둔화 지속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연금의 낮은 매력도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공시이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연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임
- 또한 저축성상품 설계기준 변경(17. 1월)으로 인한 회사의 판매유인 약화가 지속되고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II-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I-29〉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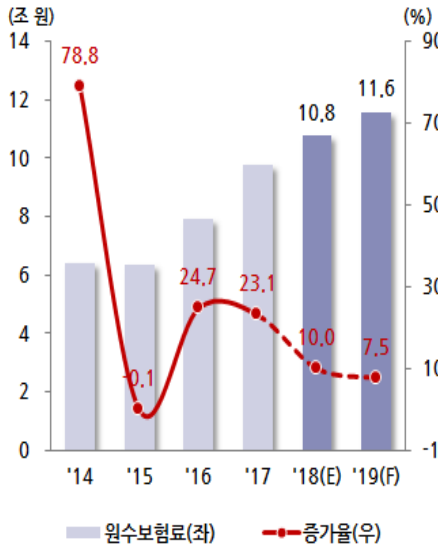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베이비부머 은퇴 및 DB형 사외적립 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할 전망이다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17. 7월),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의 확대('19년, 90%) 및 임금상승률의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판매('18. 10월, 5천만 원 이하)¹⁹⁾ 및 타 금융권 실적 배당형 DC형 시장 확대에 인한 경쟁 심화,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적립금 부담에 따른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전략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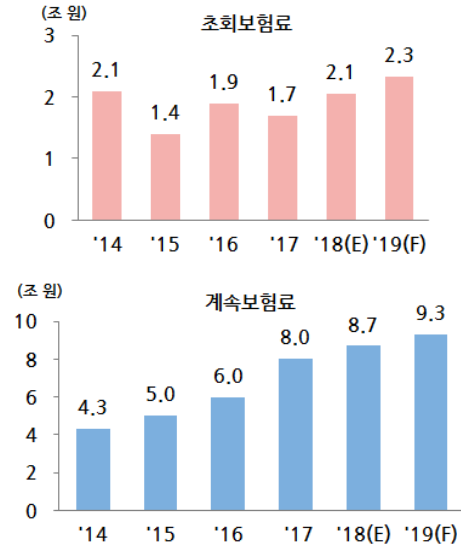
1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23),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림 II-3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31〉 퇴직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심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 및 할인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하반기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2017년 하반기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심의 요율 인하 효과로 하반기 증가세²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보험료 경쟁 심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증가 및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의 할인 특약 가입 확대에 의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원수보험료의 증가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임

20) 동아일보(2018. 11. 12), “최저임금 인상 탓 정비용 경충... 車보험료 연내 3% 오를 듯”

〈표 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6.4	9.4	16.9	2.8	16.9	0.2	17.0	0.5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증가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18. 6월)에 따른 약 2% 후반대의 보험료 인상 요인²¹⁾이 발생하였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일용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됨

- 2005년과 2010년 정비요금 조정은 보험료 상승률을 확대함(〈그림 III-33〉 참조)

-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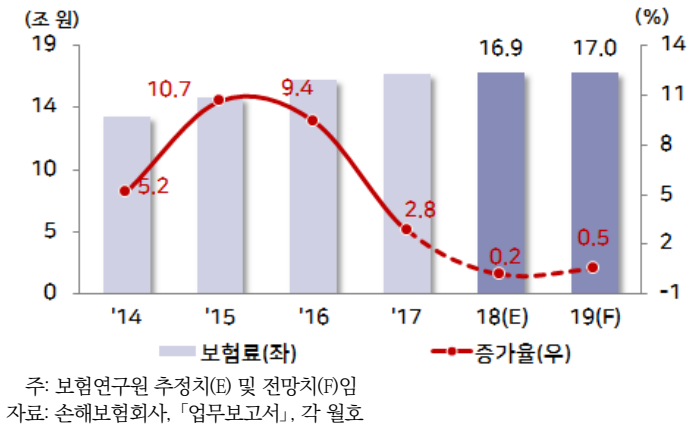
○ 다만,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손해율 하락,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로 원수 보험료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또한 다수의 보험요율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실제 반영 여부가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화, 인터넷 가입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적정 시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그림 II-32〉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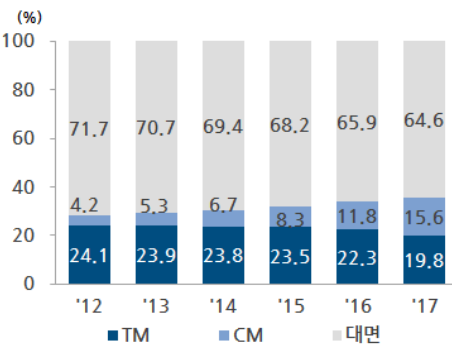


〈그림 II-33〉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그림 II-34〉 채널별 판매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마. 일반손해보험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개선으로 보증 및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하와 타 보험으로의 이탈 지속 등으로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해상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해운

업 구조조정 및 글로벌 해운업의 공급과잉,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0.7% 증가가 예상됨

- 보증보험은 SOC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수주물량의 이행보증 수요와 증금리 대출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신용보험 시장 확대에 전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종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17. 1월)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기업성보험 가격자유화 시행으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7	8.3	10.5	8.4
화재	0.3	-1.0	0.3	-1.5	0.3	-1.2	0.3	-0.6
해상	0.6	-14.3	0.6	5.9	0.7	0.7	0.7	1.0
보증	1.6	0.6	1.7	9.6	1.9	10.0	2.1	10.0
특종	6.0	5.4	6.2	3.7	6.8	9.0	7.4	9.0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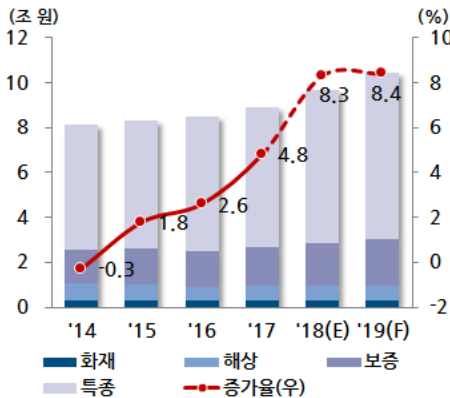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과 유사하게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증가세가 계속되겠으나, 경기둔화로 인한 공장물건과 일반물건의 이탈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 수주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²²⁾ 실제 건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개선으로 보증보험(10.0%)과 특종보험(9.0%)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2) YTN(2018. 10. 29), “[중점] 조선 수주 ‘세계 1위’ 탈환... 어두운 그림자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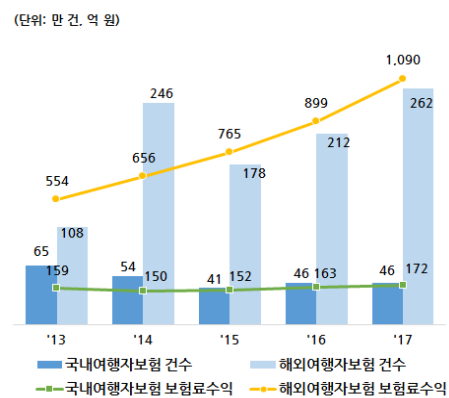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19. 6월) 등 의무보험 확대는 신규 수요를 증가시키고 제도 변경에 따른 간단보험 활성화 및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증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애견보험 판매 증가,²³⁾ 핸드폰 고액화,²⁴⁾ 국내외 여행자 증가와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²⁵⁾에 따른 여행자보험 증가 등은 특종보험 성장에 긍정적 요인임(〈그림 III-35〉 참조)
- 다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18. 1월)에 따른 기업성보험의 경쟁 심화²⁶⁾는 기업성 특종보험의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II-35〉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36〉 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4), “여행자보험 가입서류 간소화 추진”

23) 한국금융신문(2018. 11. 1), “부진하던 반려동물 보험 시장, 급속도로 불붙은 이유는”

24) 서울신문(2018. 9. 27), “국내 스마트폰 평균 도매가 60만 원 육박”

2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4),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마련”

26)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2018. 11. 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Ⅲ. 중장기 보험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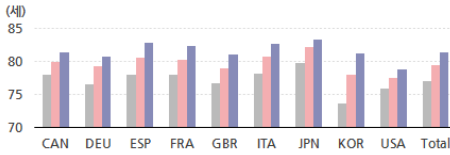
-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OECD 주요국의 자료 분석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와 수익을 전망함
 -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 8개국 자료를 분석함
 -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금리,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정량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수입·원수보험료의 수익을 예측함

1. 정성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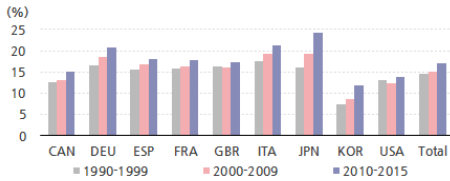
가.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이 상승할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II-1〉 주요국의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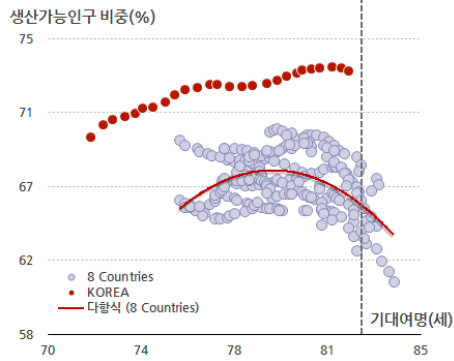


〈그림 III-2〉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OECD

〈그림 III-3〉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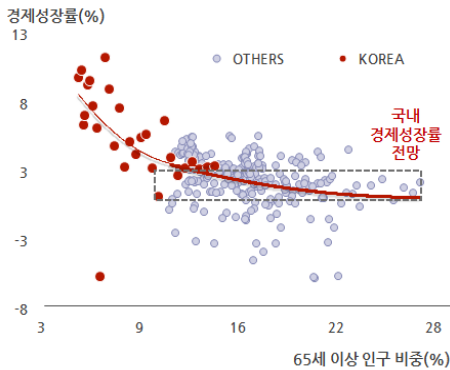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금리하락, 공적보장 영역 축소, 수입보험료 등 금융산업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금융산업 규모 감소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 경제성장률과 공적보장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공적보장 축소로 이어짐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5% 내외로 전망됨(〈그림 III-4〉 참조)
 -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공적보장이 축소될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일본,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함
 - 일본의 경우 1973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였으나 1994년 보험료를 인상하였음

- 일본은 1973년 노인의료 무료화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부터 노인의료대상연령을 75세로 상향하였고 고령자 자기부담비율을 세분화함

〈그림 III-4〉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자료: OECD

〈표 III-1〉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일본 사례)

일본 공적연금 주요 제도 변화

- 1973년 소득대체율을 상향
- 1994년 보험료 인상
- 2004년 보험료 상한율을 18.3%로 고정

일본 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화

- 1973년 노인의료무료화 실시
- 1997년 근로자 대상 본인부담 20% 인상
- 2002년 본인부담 30%로 인상, 노인의료 대상연령 75세 상향
- 고령자 자기부담비율 세분화

자료: 윤성훈(2018), 『인구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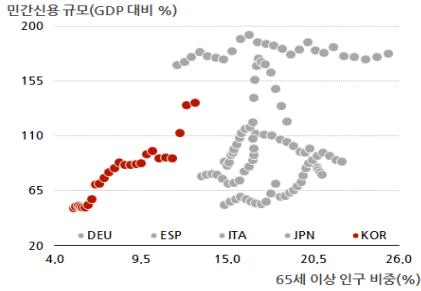
다. 금융수요와 장기금리

■ 고령인구의 증가는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신용시장의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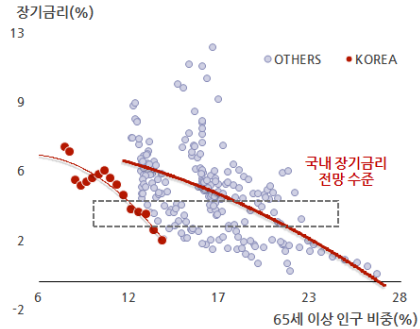
■ 성장률 하락과 자금수요 부진으로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으로 2.5~3.0%로 전망됨

〈그림 III-5〉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민간신용 규모



자료: World Bank; OECD

〈그림 III-6〉 인구 고령화와 장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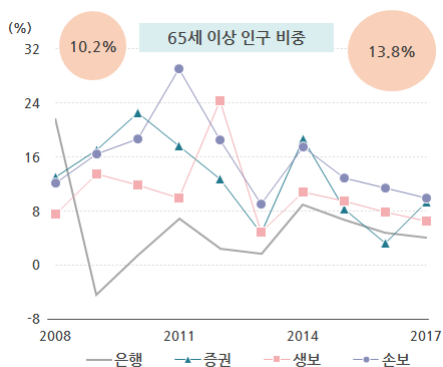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OECD

라. 금융산업 성장성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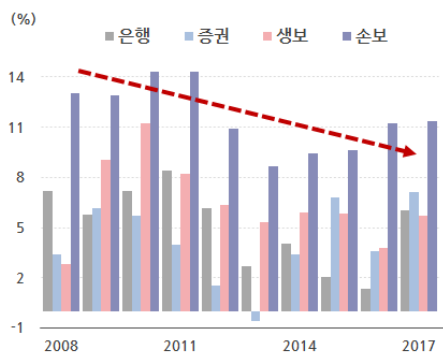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증가는 은행업 등 타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10.2%에서 2017년 13.8%로 상승함
 -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8년 7.17%에서 2016년 1.34%로, 증권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9년 6.13%에서 2016년 3.62%로 하락함
 - 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9.06%에서 2016년 3.79%로, 손해보험의 경우 2009년 13.02%에서 2013년 8.66%로 하락한 후 2017년 11.4%로 상승함
 - 은행의 자산증가율은 2008년 21.8%에서 2017년 4.1%, 증권은 같은 기간 13.1%에서 2016년 3.3%, 생명보험은 2012년 24.4%에서 2017년 6.5%로, 손해보험은 2011년 29.0%에서 2017년 10.0%로 하락함
 - 자기자본이익률도 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림 III-7〉 금융업권 자산증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I-8〉 금융업권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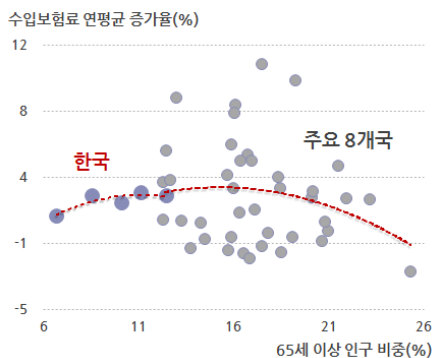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마.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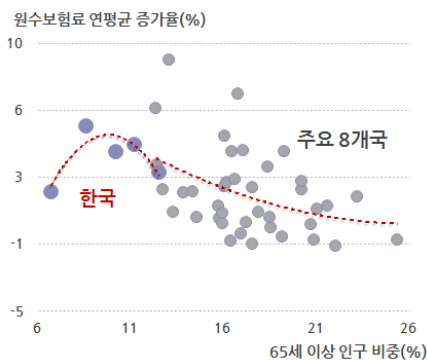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하락하고, 신규수요가 감소하는 시장포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I-9〉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OECD; 금융감독원

〈그림 III-10〉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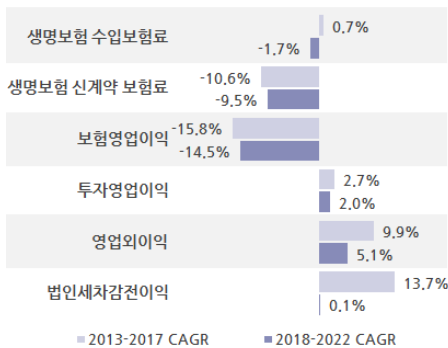


자료: OECD;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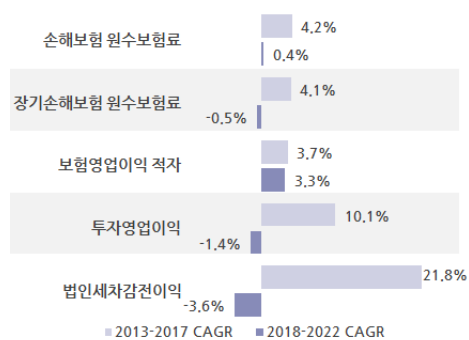
2. 정량적 분석: 중장기 전망 결과²⁷⁾

- 인구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정하여 수입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함
- 현재의 사업모형을 유지한다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확대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전망치 기준으로 2022년 생명보험은 연평균 1.7% 감소, 손해보험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을 2017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6.0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손해보험은 5.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III-11〉 생명보험 중장기 전망



〈그림 III-12〉 손해보험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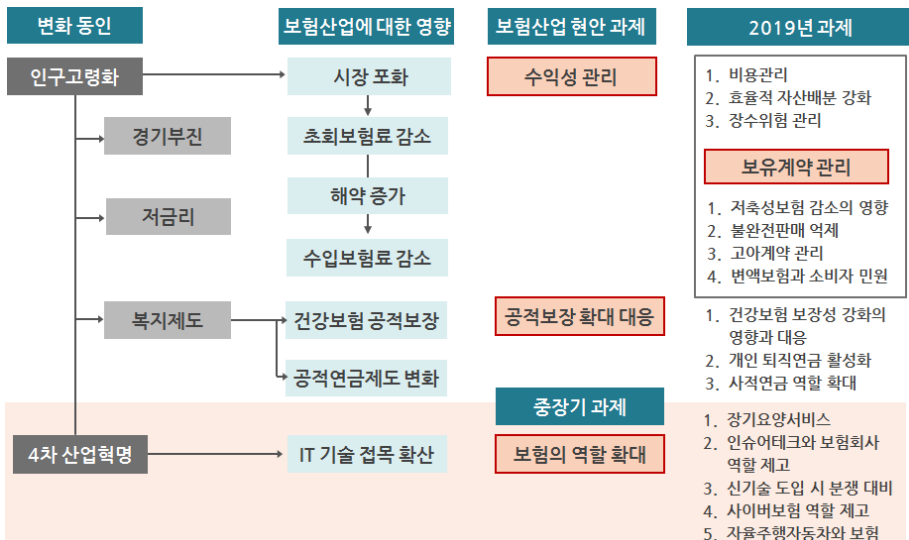
27) 정량적 전망 결과는 전용식 외(201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2022년까지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2019년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안함
- 비용관리와 보유계약 관리를 토대로 한 수익성 관리와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IT 기술 접목 확산으로 인한 보험의 역할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그림 IV-1〉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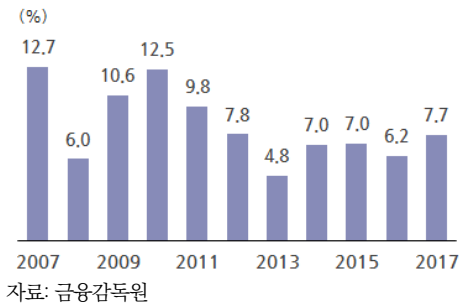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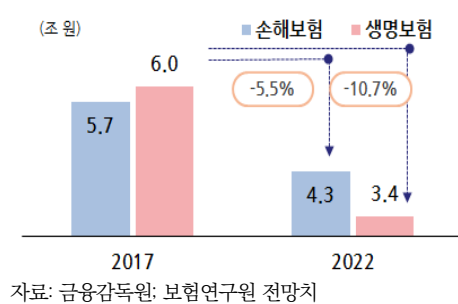
가. 수익성 관리

- 보험산업의 수익성 하락은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불가피함
 - 국내 보험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0년 12.5%에서 2017년 7.7%로 하락하였고, 중장기 전망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법인세차감전이익 규모는 연평균 10.7%,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관리를 위해 비용관리와 효율적 자산배분을 강화하고 장수위험 관리를 시작해야 함

〈그림 IV-2〉 국내 보험산업 ROE 추이



〈그림 IV-3〉 법인세차감전이익 전망



1) 비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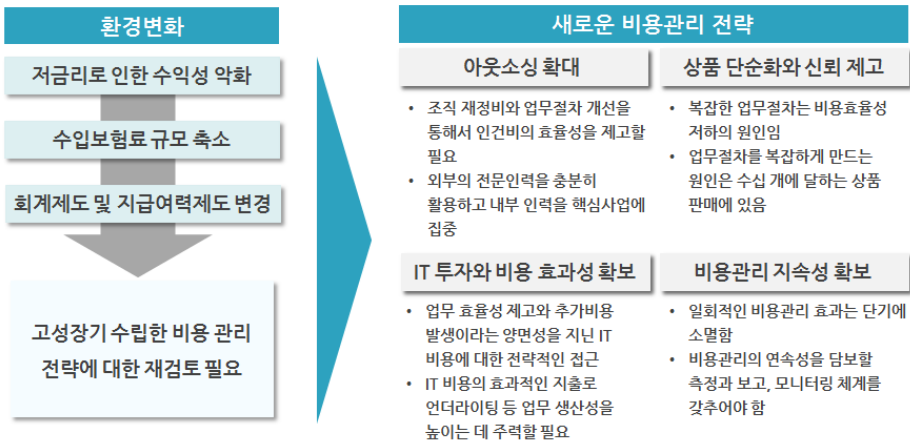
가) 필요성

- 저금리로 이익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맞는 비용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장기보험 비중이 큰 국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임

- 현행 저금리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 단계 낮아진 경제성장률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음
- 신규구자본제도(K-ICS)와 IFRS 17 시행 등으로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자본 투입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을 개선하기는 더욱 어려운 환경임

- 보험료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비용은 과거와 같은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용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그림 IV-4〉 환경변화에 따른 비용관리 전략



나) 고려사항

- 아웃소싱 등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서 인건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축소하는 인력구조조정은 조직 기강이 이완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외부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업무영역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업무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인 상품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IT 비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과도한 상품 수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는 유지비의 규모의 경제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IT 비용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양면성을 지님
 -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는 투자로서의 IT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출해 언더라이팅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비용관리 전략은 일회성 구조조정과 달리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비용관리의 연속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기업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관리의 기대이익보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비용관리 효과가 지속적으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비용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할 측정과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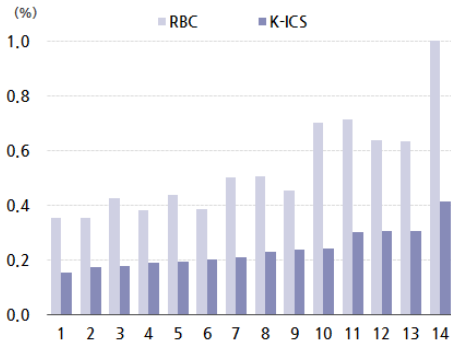
가) 필요성

- 향후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보험료적립금 증가율 둔화가 예상됨
 - 보험료적립금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자산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며, 이는 신규 투자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중장기적인 자산증가 둔화를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해야 함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시나리오 충격 방식으로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리스크를 포함한 시장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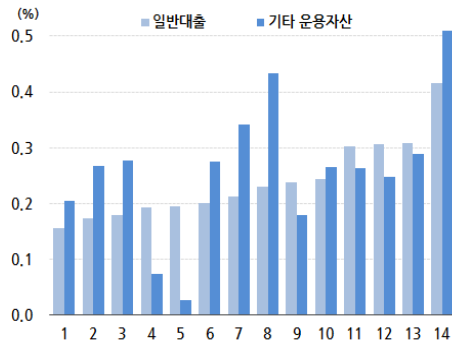
- 또한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출될 신용리스크의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 조정되어 신용리스크 양도 증가하게 됨

〈그림 IV-5〉 보험회사별 일반대출의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변화



주: 2017년 기준임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함

〈그림 IV-6〉 K-ICS 시행 시 보험회사
자산별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주: 2017년 기준임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함

나) 고려사항

- 신규 투자자산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를 고려하여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금리연동형이 대부분인 저축성보험의 판매 감소로 인해 부채 듀레이션의 축소 속도가 낮아질 것임
 - 반면, 자산증가 둔화로 인해 자산 듀레이션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할 여력이 위축될 수 있음
 - 재투자 자산의 듀레이션 확대로 금리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K-ICS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낮은 자산군은 비중을 축소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야 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일반대출(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K-ICS 시행 시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하락하는 회사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대출 중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줄이고, 기타 운용자산 중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함

3) 장수위험 관리

가) 필요성

- 2021년 도입예정인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에 기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추가됨에 따라 장수위험의 측정과 관리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있어 연금부채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함
 - 장수위험이 발생하는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생명보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중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준비금 수준은 2016년 208조 원임
 - 장수위험이 요구자본에 포함될 경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 보유계약의 증가, 보유계약의 속성 변화, 사망률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산업의 연금보험 보유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자 연령의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도 장수위험 확대요인임
 - 생명보험회사가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사망률은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 해왔는데, 이로 인해 향후 사망률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옵션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연금전환이 발생할 경우 장수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그림 IV-7〉 장수위험 관리

2021년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과 관련 이슈
• 현행 RBC 제도에는 장수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장수위험 요구자본이 포함됨 • 연금보험은 수입보험료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부담 예상	• 생명보험 산업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은 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생명보험회사의 정확한 장수위험 측정을 위해 시나리오방식 허용 필요 •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위험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장수위험 확대 가능성	장수위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미래 사망률 예측 불확실성 • 연금부채의 빠른 증가 및 계약자 고령화 • 중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 우려	• 요구자본 부담 경감을 위해 비중이 높은 장수위험 관리 유인 존재 • 재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을 이용한 자본 효율화

나) 고려사항

- 장수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나리오 방식 도입,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장수위험은 17.5%의 사망률 개선 충격을 통해 측정되며, 유럽 Solvency II와 같이 시나리오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시나리오 방식을 허용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계약자 속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충격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임
 -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장수위험 부담은 각 위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요구자본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의 상관관계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장수위험 관리를 위하여 재보험이나 보험연계증권(ILS)을 통해 외부로 전가하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K-ICS상의 요구자본 산출 구조를 활용하여 사망률 충격의 일부만을 재보험으로 전가하거나 연금지급 기간의 일부만을 전가하는 비비례 재보험도 활용할 수 있음
 - 재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을 통한 위험 전가에 대해서도 재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줄 경우 장수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음

나. 부채구조의 변화와 보유계약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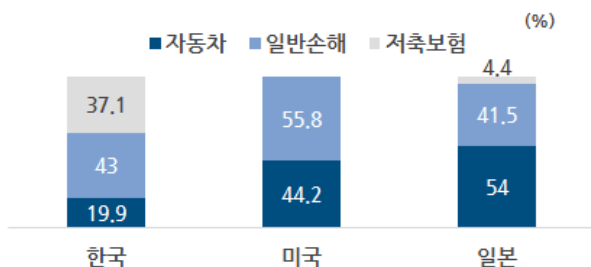
1) 해약 증가와 저축성보험 감소의 영향

- 해약 증가와 저축성보험 감소는 부채구조를 변화시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 및 이로 인한 부채구조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이익구조, 수익성, 성장성, 리스크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침
 - 저축성보험의 비중 감소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투자영업이익 비중이 낮아질 것임²⁸⁾
 - 저축성보험은 보험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으며, 주로 투자영업이익에 기여함
 - 저축성보험의 비중 감소로 보험회사의 ROA는 높아지는 반면 ROE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저축성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규모에 비해 투자이익이 작아 ROA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어 ROE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²⁹⁾
 - 저축성보험 비중 감소로 인하여 자산으로 측정한 보험회사의 성장성은 둔화될 것임
 - 저축성보험 비중 감소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 비중이 확대되고 금리리스크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리스크 분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저축성보험 판매감소에 의한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28) 본고에서 보험영업이익은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을 합한 것을 지칭하며,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율차익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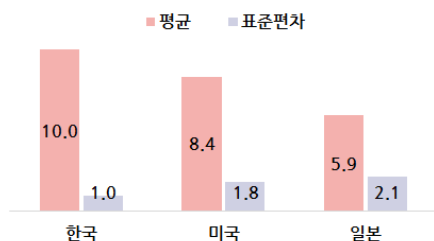
29)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영현·이혜은(2017. 3. 20), 「주요국 손해 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KIRI 리포트』를 참조 바람

〈그림 IV-8〉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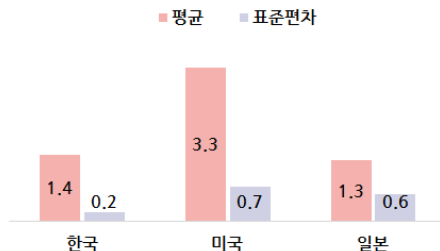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 원수보험료 대비 비중

〈그림 IV-9〉 ROE 평균과 표준편차



주: 2012~2016년의 5년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림 IV-10〉 ROA 평균과 표준편차



주: 2012~2016년의 5년간 평균과 표준편차

-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 및 부채구조 변화에 의해 보험회사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이익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시행될 IFRS 17과 K-ICS를 고려할 때 시장리스크 확대 억제 및 수익성 지표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수익으로 인식하는 저축보험료는 IFRS 17에서는 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가 향후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만, 저축보험료 적립금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성이 악화되고 투자영업이익(손실)의 규모가 감소(확대)할 것으로 보임
 - K-ICS 적용 시 현행 RBC에 비해 보험회사의 시장리스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축성보험 비중 감소는 시장리스크 확대를 억제시킬 수 있음
 - 현행 RBC에서는 저축성보험료 적립금 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어 ROE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K-ICS에서는 요구자본(시장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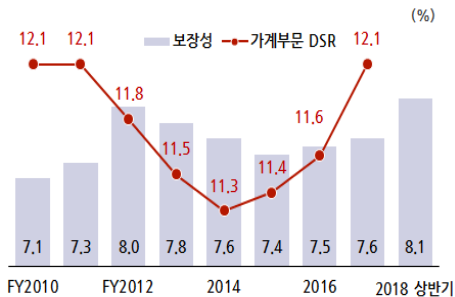
축성보험료 적립금이 ROE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저축성보험 비중 감소에 의해 보험회사의 ROE가 낮아지는 효과는 K-ICS 시행 이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저축성보험 비중 감소에 의한 ROA 제고 효과는 K-ICS와 무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2) 보유계약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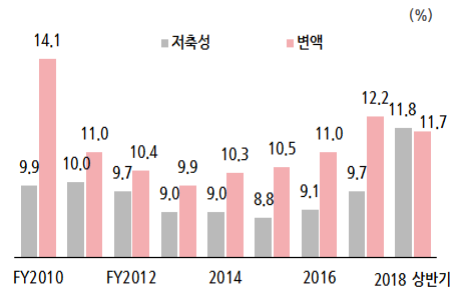
- 해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억제, 고아계약 관리 등이 필수적이고 보험산업 신뢰 제고가 중요함
- 최근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1〉 보장성보험 손해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이



주: 손해지출은 해지환급금을 당해 연도를 포함한 과거 6년간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V-12〉 저축성·변액보험
손해지출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가) 불완전판매 억제

① 필요성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0.33%로, 손해보험은 동 기간 중 0.41%에서 0.14%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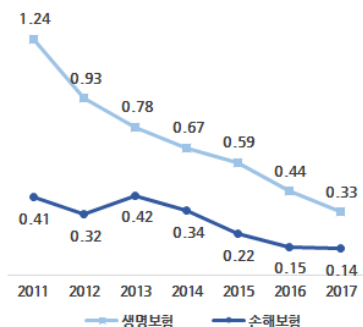
○ 그러나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전체 민원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 비중은 2012년 35.7%에서 2017년 28.1%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GA 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및 이직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서는 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IV-13〉 불완전판매 비율 추이

(단위: %)



주: 불완전판매 비율=(품질보증 해지 건수+민원 해지 건수+무효 건수)/신계약 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표 IV-1〉 보험회사의 주요 민원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지연	면부책 결정	기타
	보험 모집	계약 성립·해지				
2012	27.2	8.5	13.6	13.4	8.4	29.0
2013	26.5	8.3	16.4	11.5	10.5	26.8
2014	24.4	7.6	19.7	12.5	9.4	26.3
2015	21.8	8.8	15.3	16.1	8.9	29.0
2016	21.9	7.8	17.7	11.9	10.4	30.3
2017	19.8	8.3	18.5	10.3	11.2	31.8

② 고려사항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보험수수료 체계는 고성장·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IFRS 17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간접비는 이연상각이 불가능해져 이연상각에 의존한 현행 보험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보수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우리나라는 선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아 급격한 보수체계의 개편은 오히려 시장경쟁의 제한 및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함
- 또한, 전통적 푸쉬·판매중심 보험유통구조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널혁신이 필요함
 - 표준형·단기보험상품³⁰⁾의 경우,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인바운드형 채널로의 변화가 필요함
 - 표준형·단기보험상품 상품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이나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공시 및 정보 공개 확대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생애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시책 중심의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는 효과적이거나 무리한 판매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30)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애견보험, 여행자보험, 도난보험, EW, 휴대폰분실·도난보험 등이 있음

■ 한편, 금융상품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 관리 차원에서 판매자책임 관련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문제 등으로 판매자에 대한 직접책임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³¹⁾
 - 특히, 대형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우나, GA 또한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필요성이 제기됨³²⁾
- 보험회사는 자사상품설명 스크립트 등을 통해 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대리점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을 GA 설계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고아계약 관리

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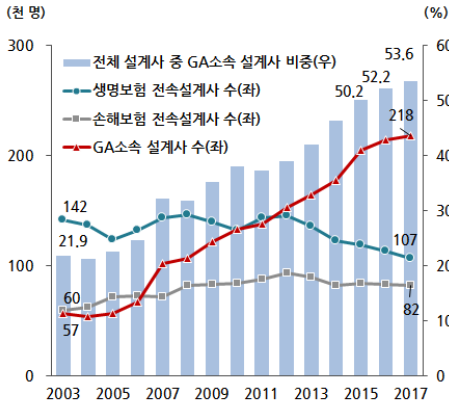
■ 모집 수수료 등 수당체계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독립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설계사가 늘어남에 따라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 고아계약(孤兒契約, Orphan Policies)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계사가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계약자가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약을 의미함
- 2017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설계사가 각각 56.4%와 55.6%이며,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비중은 35% 내외임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는 감소하나 GA 소속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53.6%임

31) 김현수·정세창·김은경(2014),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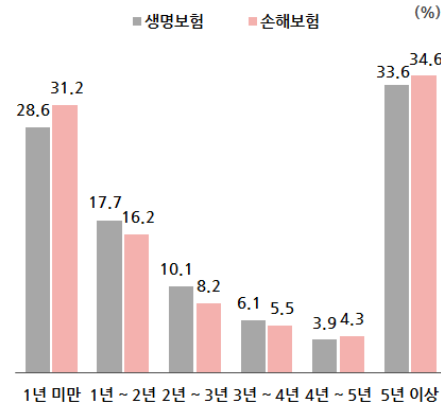
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현아(2017),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KIRI 리포트』, 제412호를 참고하기 바람

〈그림 IV-14〉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림 IV-15〉 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고아계약의 증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보험계약을 관리해주던 설계사가 없어지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연체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대하였던 보험계약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본인이 보유한 보험상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한편, 고아계약은 정상계약에 비해 해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회사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설계사정착률과 보험계약유지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며, 근속연수가 짧은 설계사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계약유지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남³³⁾

■ 이와 같이 보험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고

33) 13월차 설계사정착률과 61회차 보험계약유지율 간 상관계수는 0.56이며, 3년 미만 근속자 비중과 61회차 보험계약유지율 간 상관계수는 -0.49임

아계약 관리가 미흡하여 향후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고아계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후속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고아계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특히, 현행 고아계약 관리시스템은 기존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측면 보다는 영업 대상자 확보를 위해 추가판매(Up-Selling) 캠페인 등 신계약 창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② 고려사항

- 고아계약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근속 설계사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고객보장 최적화 서비스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특히, 고아계약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으로 추가판매(Up-Selling) 등 단기실적 제고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뿐 아니라 GA 등의 판매조직에서도 고아계약 관련 전담조직 운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이 요구됨
 - 고아계약 관리는 보험회사(관리)·영업조직(추진)·설계사(실행) 간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사에서 지점 또는 판매조직(설계사)에 고아계약을 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및 판매조직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지침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설계사의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를 구분하는 등 유지관

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유지관리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보험계약 미관리 고객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일지 확인 등을 통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보험상품별로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의 비중과 지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고아계약 발생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아계약 관리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공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설정, 고아계약 관리지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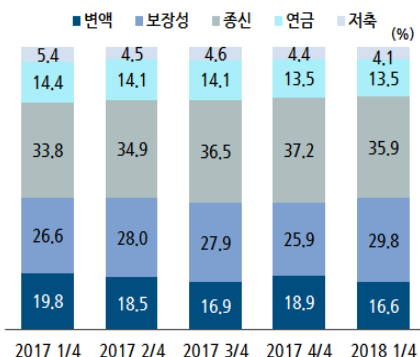
다) 변액보험과 소비자 민원

① 필요성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높아지면 변액보험의 민원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림 IV-17>에서 나타나듯이 2017년 2/4분기부터 2018년 2/4분기 기간 동안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확대될수록 변액보험 민원증가율도 상승하는 모습임
-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18년 1/4분기 16.6%로 2017년 1/4분기 19.8%에 비해 낮아졌으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 비중도 확대될 수 있음

〈그림 IV-16〉 생명보험 종목별 민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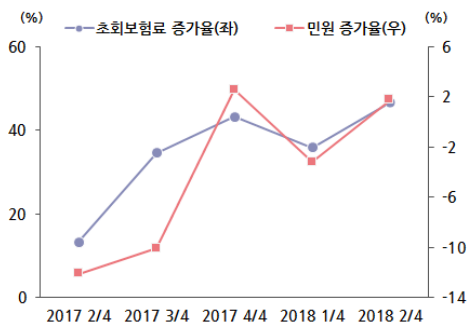


주: 1)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저축보험을 포함함

2) 보장성보험은 단독실손, 질병, 재해보험 등 포함함. 종신은 제외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그림 IV-17〉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와 민원 증가율



주: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저축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업무보고서」

② 고려사항

- 변액보험 마케팅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최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 모집단계의 불완전판매가 확대될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다. 공적보장 확대 대응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가) 필요성

-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비급여와는 무관하였으나 문재인 케어의 보장을 확대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영향을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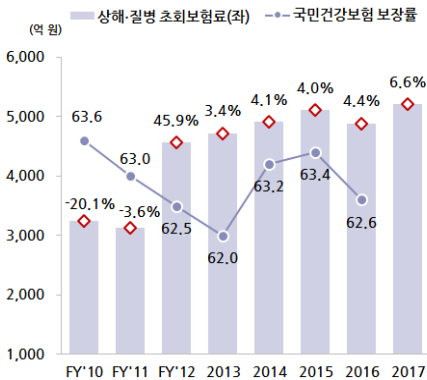
것으로 전망됨

- 〈그림 IV-18〉과 〈그림 IV-19〉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짐에도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 판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비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나)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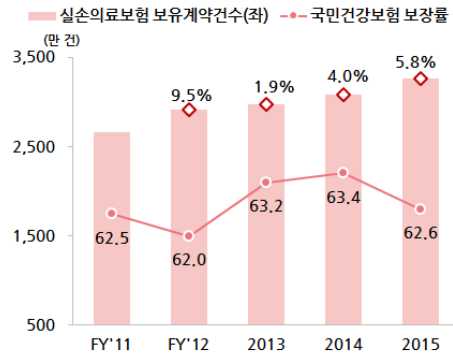
- 비급여 항목 조정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8〉 상해·질병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V-19〉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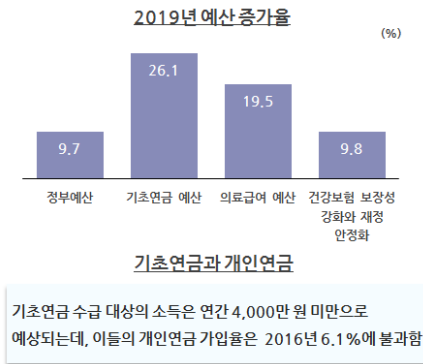
2)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가) 필요성

- 우리나라는 노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빈곤층일 정도로 심각한 노인빈곤을 겪고 있음
- 이는 우리 국민이 노후소득을 위한 충분한 자산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5~30%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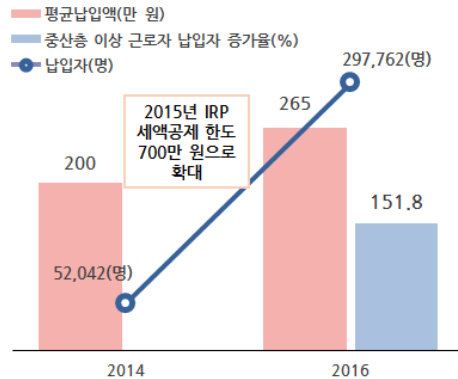
-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 활성화가 필요함

〈그림 IV-20〉 복지지출 확대 계획과
기초연금에 대한 영향



자료: 정원석(2018), 「퇴직연금 본인 적립금 세제혜택한도 확대가 사적연금 납입에 미친 영향」, 워킹페이퍼; 국세청(2014, 2016), 『국세통계연보』를 재구성함

〈그림 IV-21〉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현황



자료: 정원석(2018), 「퇴직연금 본인 적립금 세제혜택한도 확대가 사적연금 납입에 미친 영향」, 워킹페이퍼; 국세청(2014, 2016), 『국세통계연보』를 재구성함

나) 고려사항

- 2019년 정부 예산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임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중산층 이상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

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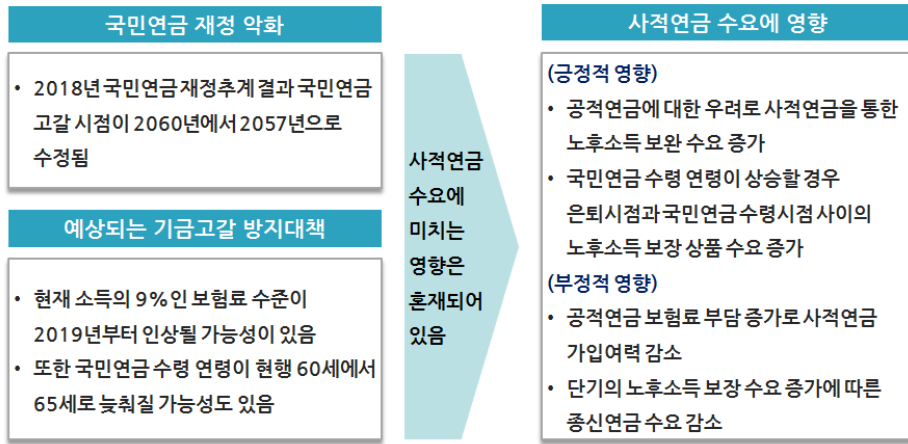
-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 추가적인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유인을 제공함

3) 사적연금 역할 강화

가) 필요성

-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적연금 제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수준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연령 또한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변화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수요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그림 IV-22〉 사적연금 관련 이슈



나) 고려사항

- 공적연금제도 변화는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사적연금 수요 증가, 공적연금 수령연령 연장에 따른 단기 연금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은퇴자들의 공적연금의 보장 약화 우려가 증가할 경우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이것이 사적연금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상승할 경우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 사이의 노후소득 보장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임
- 한편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증가, 연금 기간의 단기화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적연금 보험료의 상승은 사적연금 가입 여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사적연금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 사이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단기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종신연금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경우 전체적으로 연금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사적연금 역할 제고를 위하여 연금상품을 다양화하고 연금소비자 교육을 통한 정보전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상품을 개발할 때 종신소득 보장에 더하여 은퇴자의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퇴자의 노후생활비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금상품 판매 시 은퇴자들이 본인의 노후소득 니즈를 쉽게 파악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이 어떤 면에서 은퇴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은퇴자 스스로 자신의 니즈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함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2019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과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장기 전망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 제안함
 - 중장기 전망 결과는 고령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도출되었음
- 추세적인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추세 극복 요인들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신규 수요 제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금리하락으로 인한 해약 증가, 공적보장제도 확대에 의한 수입보험료 감소는 보험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의 발달 등 추세적 변화에 대한 대응 사례가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들의 사례임
 - 미국의 푸르덴셜은 종신보험 중심의 보험회사에서 연금 중심의 금융사업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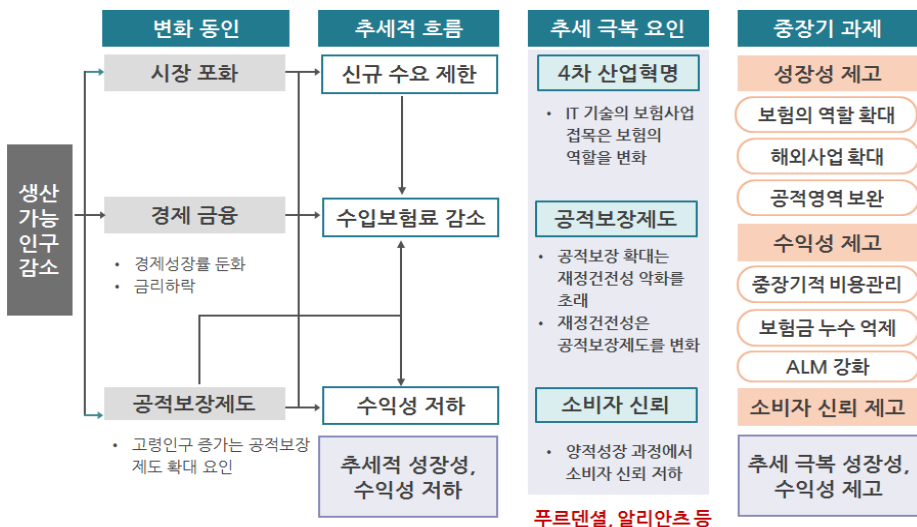
대하였고 영국의 푸르덴셜은 자산운용회사로 사업을 다각화함

- 독일의 알리안츠도 자산관리 사업이 수익의 30%를 초과하는데, 이를 위해서 글로벌 자산관리회사, 은행 등을 인수하며 사업을 보험에서 금융으로 다각화하였음

■ 201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소비자 신뢰, 공적보장제도에 대한 대응 등이 보험산업의 추세 극복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IT 기술의 보험산업 접목은 보험의 역할을 기존의 위험 보장 기능에서 위험 통제, 예방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보험의 영역확대를 통한 성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공적보장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적보장의 확대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는 공적보장 영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영보험회사에게는 기회 요인일 수 있음
- 과거 국내 보험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그림 IV-2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추세 극복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로 제시함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가. 성장성 제고

1) 보험의 역할 확대

- 양적, 질적 인구구조의 변화, IT 기술 접목 확산, 사이버 위험 등 위험의 변화 등은 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4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은 16.9%까지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치매 유병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등 고령인구 부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4차 산업혁명, 인슈어테크, 신기술 도입 등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기존의 손실 보상(Risk Financing)에서 손실 예방(Risk Control)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사이버 보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높아짐
- 일본의 스미토모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제공업체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보험, 사이버보험 등을 출시하고 있음³⁴⁾
 - 호주의 여행보험회사 Cover-More는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Generali는 이탈리아에서 입원 중인 고객에게 아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4) 김규동(2018. 11. 12),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KIRI 리포트』, 제457호를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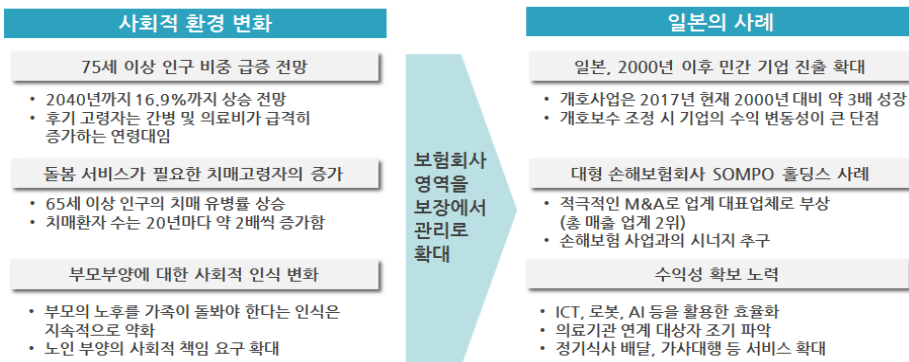
- 영국의 Aviva와 RSA는 고객의 주택 배관에 누수감지 장치를 장착하여 누수를 조기에 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 장기요양 서비스

① 필요성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역할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40년까지 우리나라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9%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간병 및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임
 -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노인 부양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대됨
- 현재 공적부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적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24〉 장기요양 서비스 일본 사례



② 고려사항

-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민간 기업의 장기요양서비스 사업(개호사업)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개호사업은 2017년 현재 2000년 대비 약 3배 성장하였음
 - 보험회사의 개호사업 진출도 활발한데, 대형 손해보험회사 SOMPO 홀딩스는 적극적인 M&A로 총 매출 업계 2위의 대표업체로 부상함
 - 개호시설, 데이터서비스 거점, 방문 간호, 방문 간병 등 브랜드를 통일,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개호 비즈니스에 접목함
 - 손해보험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일반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의료보험에 개호 서포트 플랜을 만들어 종업원 대상으로 개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개호보험 사업은 국가의 개호보수 조정 시 기업의 수익 변동성이 큰 단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성 확보 노력을 기울임
 - 개호기록 작성, 입소자의 상태 파악, 호출 대응 등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케어플랜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AI를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사업체 간 통합을 통해 임대료 등 관리비를 절감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거나 시설을 대형화하여 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함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퇴원 후 입소 체계를 확보하여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함

나)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① 필요성

-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리스크재무(Risk Financing) 기능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음

- 사고 발생 후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원함³⁵⁾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예방 및 손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IV-25〉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의 역할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역할	• 보험회사의 역할은 피보험자의 리스크관리 옵션 중 리스크 재무(Risk financing)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지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음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서비스 (국내 & 해외)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목표(칼로리 소모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기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주택 수도배관에 누수감지 기기를 장착하여 사고의 빈도 및 심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임
미래 보험회사의 역할	• 미래의 보험회사는 손실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인슈어테크의 적극적인 적용이 수반되어야 함 • 사고예방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편익도 향상시킴
보험환경 변화 필요성	• 현행 규제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고려사항

- 해외 보험회사 및 기술회사들은 국내에 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구글 및 아마존은 스마트 홈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은 건강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인슈어테크 관련 기술이 보험회사 및

35)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손실방지(Loss Prevention)와 손실감소(Loss Reduction)라고 하며, 리스크재무 이전의 이러한 리스크관리 단계를 리스크통제(Risk Control)라고 함

관련 서비스의 개념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

- 해외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며,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험에 적용하고 있음
 - Aimo의 AI와 3D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고객의 동작 분석 및 사고 예방, Vitality의 커넥티드 기기를 이용한 고객의 행동 분석과 건강 컨설팅, Generali의 안전 운전 유도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함

■ 미래의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를 적극 이용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관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 현행 규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영업 활동과 재무적 건전성 유지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므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험 규제가 필요함
-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는 사고 예방 및 손실 감소를 통해 고객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임

다) 신기술 도입 시 분쟁 대비

① 필요성

■ 보험산업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IT 기술이 보험산업에 접목되면서 규제와의 충돌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요율 및 보험대상 집단, 담보범위 및 약관, 보험영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음
- 요율 및 보험대상 집단과 관련된 규제는 적절한 요율 산출, 보험대상 집단 구분 제한, 잔여위험 풀(Residual Pool) 등임
- 담보범위 및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형태, 의무 또는 최소 보장범위, 사법적 해석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지급여력, 시장규율 등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활용 등의 변화가 보험산업에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이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그림 IV-26〉 신기술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



② 고려사항

- 요율 및 보험대상 집단과 관련하여 보험료 차별, 사생활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보범위 및 약관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책임문제 등에서 분쟁 발생이 가능함
- AI에 의한 보험대상 집단 구분과 가격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나 보험료 차별 문제,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문제, 독점 가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맞춤형 보장,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도입될 수 있고 이때 약관의 검토, 로보어드바이저의 전문성과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최적화, 사후 언더라이팅 등의 기술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체계적인 과소 지급 문제, 과도한 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이러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의 도입·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한 법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규제의 문제를 떠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도한 분쟁 우려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늦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라)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①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하고 있음

- 자동차와 인터넷의 결합인 스마트 카(Smart Car), 주택과 인터넷의 결합인 스마트 홈(Smart Home)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이처럼 초연결사회로 진화해감에 따라 위험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위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 사이버 사고가 물리적 피해를 수반할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의 영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피해복구가 중요해졌음

- 이로 인해 피해복구 재원 조달을 위한 위험재무 전략의 중요성도 증대하게 되었음

■ 사이버보험이 위험재무 전략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이나 아직은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② 고려사항

- 국내의 경우 저조한 보험 가입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화 도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경우 현재는 주로 특약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단독형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단독형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판매 전략의 하나로 주상품의 부가상품(Add-Ons)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위험재무 전략의 부재로 개방에 다소 소극적이었음
 - 위험을 민영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부문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① 필요성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2026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예정됨에 따라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

② 고려사항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정의, 안전 기준, 운행정보의 기록 및 보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

전자의 주의의무 등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반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배상책임 및 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자율주행차 도입 초기 단계에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채택하였음

■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201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등 관련법 정비 및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을 본격 진행할 예정임

- 자배법 개정 관련 국토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레벨3 단계에서는 자동차사고 배상책임 법제 및 보험제도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일반 자동차보험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약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해킹특약 등)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 보상 후 제작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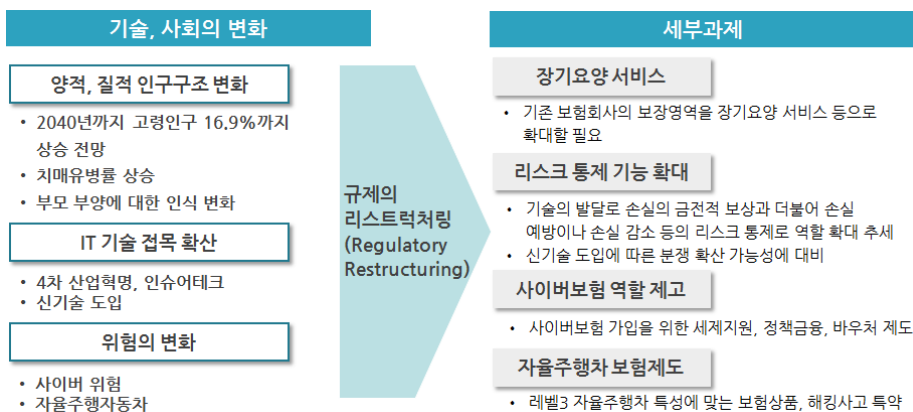
- 이러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보다 공평한 책임 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림 IV-27〉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배상책임법제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 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도 현행법제 적용방침을 밝혔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향 확정 예정 •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배상책임법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검토 예정
보험제도	•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에도 보험담보의 기본 체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임 • 보장범위, 요율산출 등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상품 도입이 필요함 • 해킹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한 특약 개발도 요구됨
사고조사방안	• 자율주행차 장치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자율주행차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또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같은 자율주행차사고 전담 조사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ATDR) 장착 의무화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와 관련된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 중임

- 기술,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리스트럭처링(Regulatory Restructuring)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의 이익이 우선되고,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법 및
의료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IV-28〉 기술, 사회 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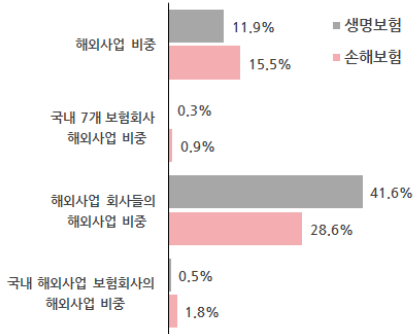


2) 해외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영역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성과는 저조함(〈그림 IV-29〉 참조)
 - 2017년 Fortune Global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7개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기준 해외사업 비중은 1% 미만임
 - 반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자산기준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 11.9%, 손해보험 15.5%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10배 이상임
 -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0.5%, 손해보험 1.8%이나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41.6%, 글로벌 손해보험회사들은 28.6%임

- 해외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점유율이 10% 수준인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사업 이익은 2016년 기준으로 그룹 이익의 27%를 차지함
 - 다이이치 생명은 베트남 시장에 현지 국영법인(Bao Mihn)의 100% 지분 인수로 2007년 현지에 진출하였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이 10년 동안 6.1%p 상승함

〈그림 IV-29〉 2017년 Fortune Global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자료: 2017년 Global Fortune 2000

〈그림 IV-30〉 다이이치 생명의 베트남
진출 사례

- 2007년 현지 국영법인(Bao Mihn) 지분 100% 인수
-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이 10년 동안 6.1%p 상승
- 동기간 베트남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매년 19.5% 성장
- 다이이치 생명은 최근 10여 년 동안 총 6개국에 진출했으며, FY2016 기준 해외사업 이익이 그룹 이익의 27% 차지

시장점유율(%)



자료: 다이이치 생명, 『경영전략 2018』

3) 공적영역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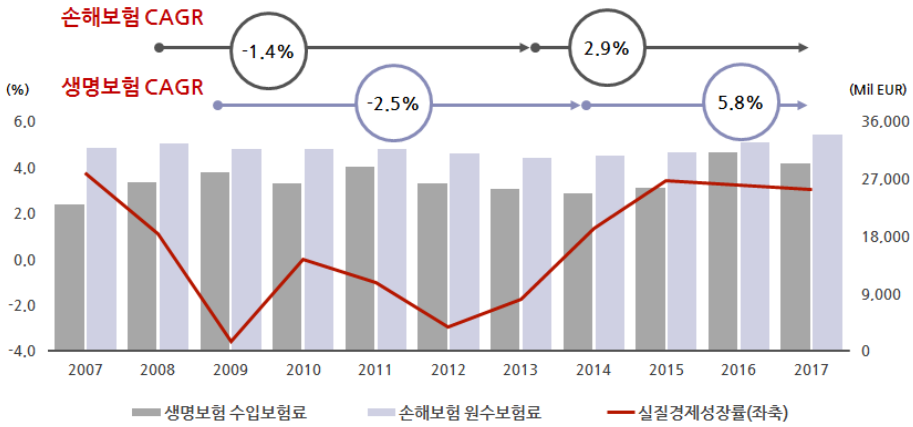
-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 손해보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4%, 생명보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5% 감소함

- 2013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수입 및 원수보험료의 증가율은 상승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8%, 손해보험은 연평균 2.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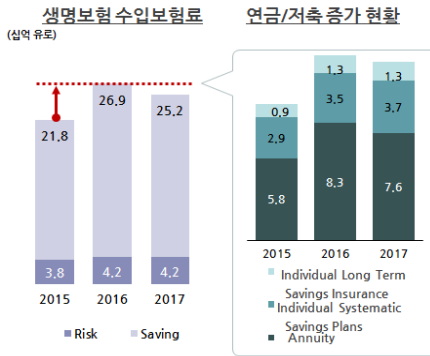
〈그림 IV-31〉 스페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



■ 경제성장률 회복과 더불어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적보장 관련 비용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초래된 공적보장의 축소를 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수요를 창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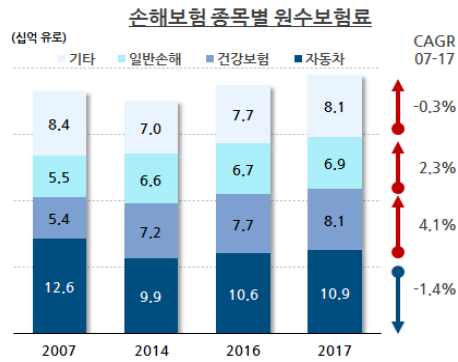
- 2014년부터 시작된 연금개혁안이 실질 연금지급액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및 저축수요가 증가하였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이어짐
- 2010년부터 시작된 의료 및 보건부문 비용절감 정책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민영 건강보험이 증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함

〈그림 IV-32〉 생명보험 연금저축 증가



자료: 2017년 Global Fortune 2000

〈그림 IV-33〉 손해보험 건강보험 확대



자료: 다이이지 생명, 경영전략 2018

나. 수익성 제고

-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비용은 일반 기업과 유사한 비용,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자산부채듀레이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산부채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 금리변화 등 시장상황 변화가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치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험회사는 자본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1) 비용관리

- 유럽 보험회사들의 비용관리는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극복한 원동력으로 평가됨

- 유럽 주요 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IT 버블 붕괴 직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16.4%까지 상승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크게 하락하였으나 10% 내외로 상승함³⁶⁾

36) Boston Consulting Group(2008),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European Insurance Landscape"를 참조함

- 유럽 보험산업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쟁도가 높아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과 위험인수 관련 자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규제 변화가 유럽 보험산업의 비용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IV-34〉 유럽 보험산업 주가와 자기자본이익률



자료: Bloomberg; BCG(2008),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European Insurance Landscape"

-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2017년 7.7%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여지가 있으나, 효과적인 비용관리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보험료 결정 등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환경 개선이 필요함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등 경제·금융환경이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유럽 보험산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 보험료 결정, 위험인수 관련 규제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금 누수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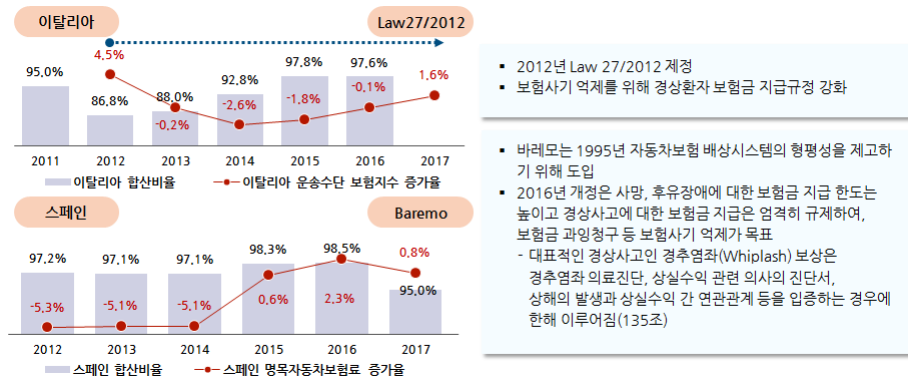
-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비용관리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관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

적인 보험금 지급규모를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강화하여 보험금 누수를 억제, 보험료는 하락하였고 산업의 경영 성과는 개선됨

- 이탈리아는 2012년 Law 27/2012를 제정하며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규정을 강화함
- 스페인은 1995년에 도입한 바레모(Baremo)를 개정하였는데, 개정 내용은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는 높이고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엄격히 규제하여, 보험금 과잉청구 등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것임
-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보험료 인상률이 하락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도 낮아짐

〈그림 IV-35〉 이탈리아와 스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와 합산비율



-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억제에는 소비자 불만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 있어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지만 스페인은 공신력을 갖춘 인신상해 손해사정인의 평가와 바레모에 근거하기 때문에 민원 이슈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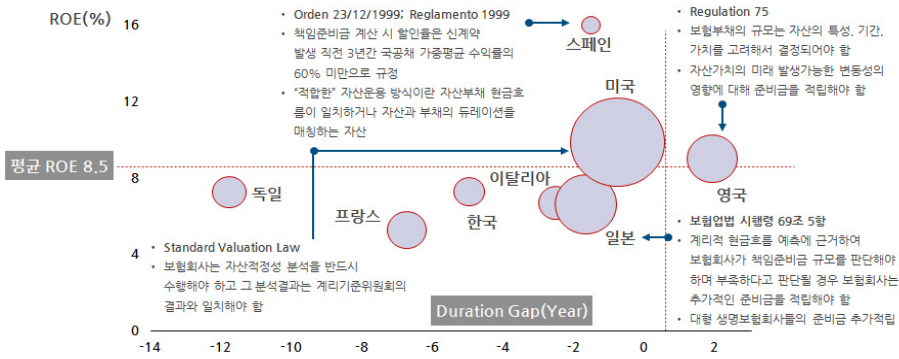
3) ALM 강화

- 금리 등 시장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방안이 자산부채듀레이션 관리임
 - 보험회사의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더 크게 변화하여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잠식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본비용이 소요되는데,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통해 자본비용을 관리할 수 있음

- 영국, 스페인 등은 자산부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시장 위험으로 인한 자본비용을 관리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1998년 제정된 ALM 관련 법률이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할인율을 규정하고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림 IV-36>은 주요국 보험산업의 듀레이션갭과 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미국, 영국, 스페인 등 듀레이션갭이 작은 국가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관계를 미약하게나마 보이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의 ALM 관련 규제는 영업행위 자율성은 보장하고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감독철학에서 비롯됨

〈그림 IV-36〉 2015년 주요국 기준 듀레이션갭과 생명보험 자기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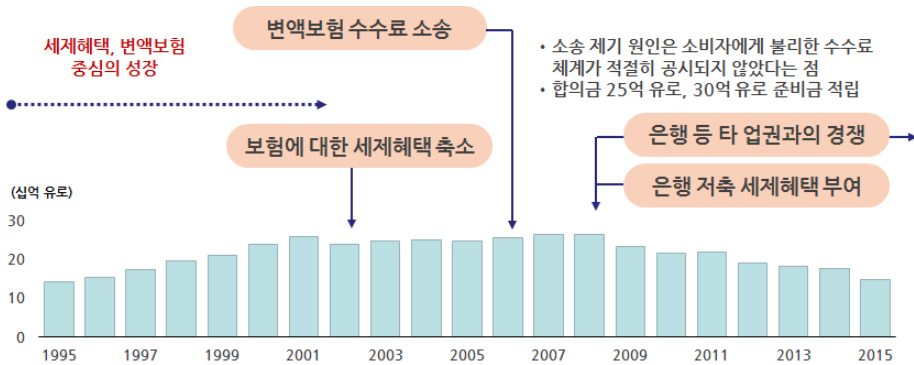


주: 동그라미의 크기는 2010~2015년 평균보험료임

다. 소비자 신뢰 제고

- 보험산업에서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덜란드의 사례는 수입보험료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네덜란드 생명보험산업의 2015년 수입보험료는 2008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함
 -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수입보험료의 주요 감소 원인들은 보험에 대한 세 제혜택 감소, 은행의 장기저축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그리고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으로 인한 보험산업 신뢰 저하임
 - 위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서 보험산업 신뢰 저하가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함
-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의 원인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가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임
 - 합의금으로 보험회사들은 25억 유로를 지급했으며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여 30억 유로의 준비금을 적립함
- 네덜란드의 사례는 소비자 신뢰가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원동력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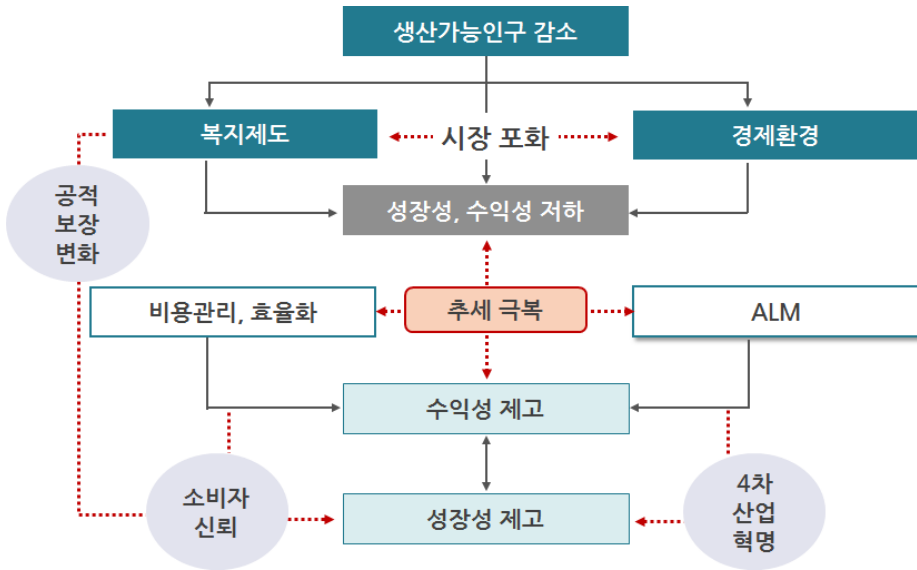
〈그림 IV-37〉 네덜란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라. 요약

- 이상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음(〈그림 IV-38〉 참조)
-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경제환경,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포화 현상을 지속시킬 것임
- 이러한 추세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산업은 비용관리와 사업효율화, ALM 관리를 통한 자본비용 관리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리고 추세 극복 요인인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변화, 소비자 신뢰 등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제고해야 함
 - 비용관리, 효율화, ALM 등을 통해 수익성을 관리하고 추세 극복 요인 활용을 통해 성장성을 높이면 보험산업의 수익성도 제고될 수 있음

〈그림 IV-38〉 요약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금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 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량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전 용 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조 영 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김 진 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E-mail : kjo990@kiri.or.kr)

권 오 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katie5022@kiri.or.kr)

이 혜 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he@kiri.or.kr)

김 유 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최 예 린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yerinchoi@kiri.or.kr)

연구보고서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02-0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